



우리 민족 제일 일세

궁지에 넘쳐(♩=140)

mf E^b A^b Fsus₇ B^b₇

1. 오 천년 - 의 역 사 와 - 문 화 를 가 진 -
 E^b A^b B^b₇ E^b

(후렴) 례 절 밝 - 고 문 명 한 - 민 족 이 - 라 오 -
 f A^b E^b F_m F₇ B^b E^b₇

자 랑 하 자 - 우 리 민 족 - 사랑하 자 우 리 의 땅
 A^b E^b B^b₇ E^b

세 상 천 지 - 둘 려 봐 도 - 우 리 민 족 제 일 일 세 -

2. 자기것을 제일로 여기는 나라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이라오
 (후렴)

3. 해와 별 찬란해 빛나는 민족
 온 세상에 존엄을 펼쳐간다오
 (후렴)

작사 리광선
 작곡 황진영



차례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	3
청계천의 하나로	5
일화	
장군님과 조선옷	6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조국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단결의 시위	8
단상	
『희원』의 사상	9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체	10
유의한 투자환경이 보장된다	11
심청, 하늘을 살다	12
비타민C—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4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로대 마련	16
좌담회	
금상을 받은 조선민족음식들을 놓고	18
단고기료리와 함께 36년	20
조선옷제작자들	22
양복용 위해 가는 사업용	24
세금없는 나라 공화국을 두고	26
그가 세운 기록	27
방문기	
『조국은 내 삶의 요람입니다』	28
수기	
봉봉에 길한 냄새	30
지적제품 생산자들	31
편지	
모두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어보자	33
고향소식	
자기 힘으로 마중하는 쾌일	34
조국의 품에 안겨	
록파를 기쁨	36



고향소식

자기 힘으로 마중하는 쾌일

조국의 품에 안겨

록파를 기쁨

나라의 자원, 대대손 손 물려줄 재부	37
애국애족의 한길을 따라	38



마뜻한 성, 희상의 영광	43
---------------	----

현대조선

일제의 군사적 강점을 빼앗아	44
-----------------	----



민족의 향기	
유구한 승마의 역사를 거슬러	46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강들	48
조국통일의 주체	48

력사인물

조선화발전에 이바지한 강희안	50
-----------------	----

야화

글 모르는것이 서려워서	51
--------------	----

천연기념물

성균관느티나무	52
---------	----

사화

외교의례꼴에 있는 일	53
-------------	----

예나과 예나	54
--------	----

역사의 교훈	55
--------	----

백두대간 출기	56
---------	----

상식	
두부비지는 몸만의 『때』를 씻어준다	19
조선녀성의 미덕	25
민족의 자랑 금속활자	50
조선속담 (계드름)	21
유모아	
『제 아버지 병도 못 고치는데…』	44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

한편의 노래가 조국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흰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

노래 『조국찬가』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볼수록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인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비단에 수를 놓은듯 아름다운 강산에 태를 묻고 살아오면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꽂피워왔다.

그러나 지난날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은 있어도 그것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여 세월의 이끼속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조선인민이였다.

세기를 두고 억눌리고 버림받아온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찾아주고 빛내주신 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다.

오늘도 평양시 강동군의 대박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단군릉으로는 조국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과 해외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찾아온다.

돌이켜보면 오랜 세월 풍운속에 신화로만 전해지던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찾아주신 분은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비록 신화적인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구월산, 묘향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단군유적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시고 친히 단군과 관련된 유적들과 역사 자료들을 연구하시였다.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었을 때에는 강동군에 있는 옛 단군릉을 찾으시고 단군릉과 그 주변에 세운 기적비와 돌사자를 잘 보존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며 개건할 단군릉의 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장군님께서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꾸려주심으로써 고조선으로부터 고구려, 고려 등 련연히 이어온 5천년의 유구한 민족사가 정립되었으며 온 겨레의 가슴속에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게 되였다.

단군릉만이 아니다.

동방의 천년강성국이었던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룡이며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태조 왕건의 룡, 천수백년동안이나 보존되어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광법사와 고려성균관 등 수많은 역사유적들이 홀륭히 개건확장되고 많은 역사자료가 새롭게 밝혀져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더욱 빛나게 되였다.

이 땅 어디에 가나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민족적색채에 현대미를 조화롭게 갖추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이며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민족의 자랑인 조선치마저고리를 산듯이 입고 거리를 오가며 명승지를 찾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또한 아름답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색갈의 문양고운 천으로 만들어진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외국의 벗들은 그 우아함에 감탄을 터치고 있다.

웃차림뿐 아니라 말도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고 춤도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추며 노래도 민족적색채가 어린 가사와 선률로 부르는것이 조국인민들의 모습이다.

설명절이 오면 부모님과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등 인사를 해도 남의 식이 아니라 민족의 인사법을 따르고 추석날에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것을 비롯하여 미풍양속이 더욱 아름답게 꽂펴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우리 민족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속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 감정과 레이도덕, 조선사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속 전통을 가지고있다는 높은 긍지를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그리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음악에서 우리 민족고유의 장단을 살릴데 대한 문제, 민요를 바탕으로 선률을 만들데 대한 문제, 무용에서 고유한 조선춤가락을 살려쓸데 대한 문제,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작품창작에서도 민족적형식을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세대가 바뀌지만 조상전래의 민족전통이 면면히 이어지는것이 조국의 모습이다.

민족적정서가 질고 높은 예술적기교로 일관된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하여 농악무경연이나 전국조선온전시회,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등이 민족의 향취를 돋구어주며 해마다 성황리에 진행되

고있다.

그런가 하면 평양랭면, 단고기국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음식들이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더욱 발전하고있으며 해마다 각지에서는 민족음식에 대한 품평회가 진행되고있다.

민족적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의지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대성산기술에 펼쳐진 평양민속공원에는 뜻깊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민속공원 공사현장을 찾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현장을 하나하나 밟으시며 건물배치와 건축물의 축적문제 등 건축기술공학적 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준공을 앞둔 때에도 또다시 현장을 찾으시여 드넓은 평양민속공원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은 장구한 역사적기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슴깊이 간직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민속공원에 새로 전개한 조선민속박물관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참관자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룩한 민속전통과 미풍양속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사회주의생활 양식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평양민속공원은 터전으로부터 학술안,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로고가 어려있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완공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정말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훌륭히 꾸려진 평양민속공원의 관리운영을 잘 하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주체성과 민족성을 더욱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가닿고있다.

아름다운 강산에 아름다운 인민의 마음이 합쳐진 조선의 모습, 그 조국이 오늘 나날이 약동하고 젊음으로 비약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

청 체 몽 케 의 하 나로

전시켜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준비한 시범출연을 보아주시면서 정말 사람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시며 지난해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권도시범출연을 보시고

지적해주신 부족점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치하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말씀에 따라 조직된 태권도선수들과 격술전문가들파의 맞서기경기가 시작되었다.

선수들은 이런 경기를 처음으로 하다니니 긴장되어서인지 돌려차기를 비롯한 태권도

들의 기본동작들은 하지 못하고 서로 붙잡고 돌아가기만 하였다.

주체101(2012)년 3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태권도선수들과 사범들의 시범출연을 보아주시였다.

태권도선수들과 사범들은 열마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오시여 자기들의 미숙한 시범출연을 보아주신데 이어 또다시 자기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시며 그이께서는 《앞으로 태권도발전에 힘을 넣어 우리의 태권도를 더욱 발

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조국강산을 더 이루어지는 더욱 아름다운 강산을 펼쳐놓게 될 것이다.

그 열렬한 사랑은 조국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

소년들속에서 태권도를 장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태권도사범단을 다른 나라들에 많이 파견하여 우리의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태권도의 위력을 시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태권도발전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6월 20일 태권도선수들과 사범들의 경기를 또다시 보아주시였다.

경기를 다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태권도선수들이 자기 특기를 대답하게 실현해보려고 시도하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주도권을 틀어쥐고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었다고 하시면서 태권도선수들이 상대방을 치고 빠지며 련결타격하는 동작이 보기 좋다고, 예술화하는 편향을 많이 극복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태권도기술과 경기전법을 우리식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태권도시범출연을 보아주시며 태권도를 민족의 정통무도로,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무술로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주신 그이의 손길은 태권도의 발전, 민족체육발전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학철

장군님과 조선옷

오늘 조국의 여성들이 즐겨 입는 치마저고리에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주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깃들어있다.

주체65(1976)년 4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여성 일군을 만나시여 여성들의 옷차림을 더 밝고 화려하게 갖추어줄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지난 기간 국

가에서는 나라의 매 가정에 많은 천과 옷을 생산하여 공급해주었으나 우리 여성들은 부모생각, 아이들 생각에 그것을 꼭꼭 챙겨두면서 자기들의 옷은 잘 해입지 않고 있다고, 더 많은 천과 옷을 생산해서 여성들이 자기들의 옷차림에서도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요즘 거리에 나타난 처녀들의 조선옷차림이

어떤가고 그에게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계절에도 맞고 단정한것이 아주 보기 좋다고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는 동무말이 옳다고, 치마저고리는 언제 보아도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언제 보아도 좋습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에서 기본은 단정하면서도 고상하고 우아한것인데 조선치마저고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이께서는 그러시면서 세계

의 수많은 나라 여성민족옷가운데서 아마 우리 나라 여성들의 치마저고리를 따를 옷이 없을것이라고, 우리 여성들이 조선옷을 입을 때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으로만 입지 말고 서로 다른 색갈로 조화를 맞추어 입어도 좋겠다고, 조선옷의 기본특성을 살리면서도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를 더 탐구하고 세련시켜 우리 민족옷의 우월성을 잘 발양시키는데도 머리를 써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여성들의 옷차림에서는 민족성을 살리는 것과 함께 현대성을 잘 결합시

키는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시며 여러가지 형태의 아름답고 실용성있는 여성옷들을 많이 만들어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나날에도 그이께서는 치마저고리견본을 보아주시면서 곳곳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옷점을 따로 내오도록 해주시였으며 중앙과 도별로 조선옷전시회를 하도록 하시고 TV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 적극 선전하도록 해주시였다.

이 과정에 조선옷은 민족성과 현대성이 잘 결합되어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옷으로, 여성

들모두가 좋아하는 옷, 즐겨입는 옷으로 되었다.

해마다 진행되는 조선옷전시회는 우리 여성들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내세워주시고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이신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의 사연들이 어려와 무심히 볼수 있게 한다.

아무리 훌륭한 풍습과 자랑할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지켜주고 꽂아주는 손길이 없다면 그 전통은 허물어지고 민족의 운명도 지켜낼수 없을것이다.

* * *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조국

최근 몇해사이 조국에서는 새로운 이름들이 련이어 생겨났다.

창전거리, 인민극장, 풍라꼽등어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해당화관… 한마디로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

실지 지난 한해에만도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였다.

수도 평양에는 집집마다 현대적인 가구들과 부역세간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은하파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체육인살림집 등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지고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비타민C공장과 평양국제축구학교 등 훌륭한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을 퍼워올리였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드넓은 마식령지구에 10여개의 스키주로와 호텔, 숙소, 직승기착륙장, 삭도 등 수십여 개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마식령스키장이 일떠섰

고 세포, 평강, 이천지구에서 대규모축산기지인 세포등판개간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참으로 온 나라가 건설의 열기로 들끓었다. 황해남도물길공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홍건도간석지건설 그리고 각지에 버섯공장과 남새온실, 체육공원과 화초공원건설…

조국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해외각계의 반향은 커졌다.

지난해 7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미동포 박상권은 《1년동안에 공화국은 10년만큼 변했다.》고 말하였으며 로씨야 21세기판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 빠威尔 오브싼니꼬브는 《김정은령도자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큰 전진을 이루고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펴력하였다.

건설의 최전성기, 이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에 진행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

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등에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한편 인민군대가 앞장에서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도록 힘있게 이끄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발휘되는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으며 건설의 전반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때로는 한창 건설중인 초고층 살림집의 층계를 한층, 한층 오르시며 건설정형을 알아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람세찬 건설장을 찾으시여 수첩에 그림을 그려가시며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보장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이르기도 하시였다. 지난해 6월에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였으며 11월에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으시여 앞으로 능력있고 유망한 건설, 건재부문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땅우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모두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완벽하게 건설되도록 집중적으로 세심하게 지도하시였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문수물놀이장의 건설과정을 잊지 않고있다.

당시 그이께서는 방대한 규모의 문수물놀이장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깊은 밤에도 건설장을 찾고찾으시였고 완공을 앞둔 지난해 9월에는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 보아주신 물놀이장형성안만 하여도 113건에 달한다고 한다.

참으로 그이의 원대한 부강조국건설구상은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 자랑찬 현실을 펼쳐놓았고 그렇게 마련된 수많은 창조물들마다에서 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조국의 모습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전호에서 계속)

내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책임자로서 중국의 청년 학생들한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길림에서 일찍부터 공산주의 운동의 가치를 들었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하면 그때로 말하면 중국공산당 만주성 위원회 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였으며 길림시내에 공청원이 얼마 없을 때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사업을 하면서 중국계통으로도 공청사업을 하였다. 공청 조직에서 우리가 책임적인 역할을 하다니 많은 중국 청년들이 우리를 따랐다. 길림사범학교 공청소조 책임자였던 조아범이나 돈화지구에서 공청사업을 맡아 하던 진한장도 우리와의 련계 밑에 공청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였다.

시위준비를 다그치던 우리는 철도당국자들이 1928년 11월 1일 길돈선철도개통식을 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시위 시작 날짜를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며칠 앞당기였다. 그것은 길회선철도부설 반대의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길돈선철도개통식도 파탄시키자는 것이였다.

1928년 10월 26일 새벽 선전대는 날이 새기 전에 길림의 거리들에 빠라를 뿐이고 격문을 불이었다. 2~3명으로 무어진 소년회의 감시조들도 날이 밝자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날 아침 각 학교의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교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성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거리는 삽시간에 수천 명의 학생들로 차고 넘치였다. 그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 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조선글로 된 프랑카드와 《타도 일제》, 《타도 매국노》, 《회수길회선》이라고 중국글로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신개문 밖에 있는 성의회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렬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군경들과 맞다른 대렬은 구호만 웨치면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결의 시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시위대렬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했다.

우리는 시위군중을 보위하기 위하여 로동자들과 시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발동시키였다.

대렬은 규찰대를 선두로 어깨를 결고 군경들의 총검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갔다. 성의회마당에서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조중청년 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을 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일본령사관이 자리잡고 있는 신시가쪽으로 행진해갔다. 평시에는 령사관 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던 곳이였다. 일본령사관 앞에서 반일구호를 힘 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시위군중은 대마로, 북경로, 중경로, 상의가 등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길림의 시위투쟁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의 철도회사는 길돈선철도개통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일본장사군들은 상점을 버리고 자기들의 령사관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남만철도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양병원의 유리창도 박산났다.

시위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학생들은 여러 개 조로 나뉘어 시내 십여 개 소에 연단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가두연설을 하였다.

길림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만주 전지역에 번져갔다. 장춘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은 우리의 투쟁에 호응하여 태도제국주의와 6대 철도 반대 구호를 들고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길장 철도국장의 집도 습격하였다.

할빈과 천진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결사적인 련대 투쟁을 벌리였다.

연길지방 조선동포들도 떨쳐나섰다. 국내의 신문들도 우리의 투쟁을 련일 보도하였다.

시위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는 일본상품 배척 투쟁을 힘 있게 밀고나갔다. 군중은 일본인 상점들에서 일본상표가 붙은 상품들을 거리에 끌어내다가 모조리 불태워버리

였다. 어떤 상품들은 송화강에 무데기로 쓸어 넣었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상품 배척 투쟁과 결합되어 전면적인 반일투쟁으로 점점 더 크게 번져 가는데 당황한 일제는 반동군벌을 사축하여 시위군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게 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동군벌들을 견제하는 립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군벌당국이 일제의 편을 들어 우리를 탄압해나서는 만큼 우리도 그들을 견제하는 립장에만 서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 타도》의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로 넘어갔다. 이 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최대의 규모를 이루었다.

투쟁은 무려 40여 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봉천에 체류 중이던 장작상을 다급히 불러들이였으나 길림독군서의 회유무마책으로써는 대중의 고조된 투쟁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길회선철도부설 반대 투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커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조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의 만주 강점에 항거해나선 것이다.

민족주의자들과 일제의 침략에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만 하던 사람들도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청년 학생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 왔었다. 그런데 10대, 20대의 청년 학생들이 자기들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큰 일을 해제끼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민족해방 투쟁 무대에 기성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참신한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 반대 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대중을 높게 조직하면 그 어떤 총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대중의 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중에 대한 우리의 령도 방법도 이 투쟁을 통해 더욱 세련되었다. 실천 투쟁 속에서 나도 단련되고 조직도 성장하였다.

(글)

《지원》의 사상

날마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저녁이다. 우리 가정의 저녁 산보 시간은 언제나 즐겁다.

얼마전 저녁에도 우리는 평양제1백화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만수대예술극장, 만수대의사당 앞으로 산보길을 이어갔다.

만수대예술극장을 지나 만수대 언덕으로 향하는 데 어디에선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우리의 발걸음을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하였다.

그곳은 조선국민회 창건 사적비 《길이 빛나라 조선국민회》가 서 있는 곳이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괴롭 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 할 줄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노래는 들을 수록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 선생님께서 지으신 이 노래는 일제의 폭압이 아무리 간악하고 참기 어려워도 혁명가는 자기의 절개를 굽힐 수 없으며 조선의 해방은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와 해방된 조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필승의 정신을 안겨주는 노래였다.

금수강산 내 나라가 일제에게 짓밟히자 인민들은 조선의 독립을 괴하는 목소리로 부르고 불렀다.

그 목소리를 안으신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조국 해방의 높은 뜻을 안으시고 1917년 3월 23일 여기 평양의 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를 무으시였다.

우리의 눈길은 사적비문을 훑어내려갔다. 거기에는 조선국민회의 목적이 전체 조선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선 사람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는 참다운 문명 국가를 세우는데 있다는 내용의 문구도 있었다.

선생님께서 내세우신 전체 조선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조선 사람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 하려는 조선국민회의 투쟁 목적은 조직을 평양을 비롯하여 평안남북도 일대와 황해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등 국내 각지의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해, 길림, 무송, 화전 등 국외에까지 확대되게 하였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선생님의 발걸음은 그대로 아사(굶어 죽는다.), 타사(맞아 죽는다.), 동사(얼어 죽는다.)를 각오한 퍼어린 길이였고 맞다든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헤치신 력사의 새벽길이였다. 하기에 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눈보라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도 같이 일제에게 체포되어 갖은 악형을 당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오늘날 조선에 가본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훌륭한 문화봉사기지들과 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수많이 일떠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한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할 때 그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정치이며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입장에서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정치이다.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치고 《민본》, 《민권》에 대하여 떠들지 않는 나라가 없지만 실지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참답게 펼쳐나가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는 일찌기 이민위천을 정치적 신앙으로 내세우신 김일성대원수님에 의하여 조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인민에 대한 사랑을 정치의 초석으로 삼으신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이거하야!』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는 이런 글을 실었다.

오늘의 평양은 거대한 건설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마치 콘베아사슬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초를 파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준공된 건물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복에 넘친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과 체육애호가들을 맞아들이고 있으며 종합적인 휴식장들이 련이어 문을 열고 있다. 이 모든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 봉사기지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할 때에도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의 그날을 그려보시며 거연히 맞받아나가시였다.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이미 세운 뜻을 끝까지 실현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그 사상은 그대로 해방된 조국땅, 오늘의 조국땅에 꽂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렇다.

김정은동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신 후 제1번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시찰하신 대상들이다. … 결국 당과 정부의 사명은 혁명사상과 위업에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

오늘 조선로동당이 펼치는 참다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인민은 당을 어머니 품으로 믿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있다. 이로 하여 당과 인민사이의 뗄래야 뗄수 없는 혈연의 뉴대가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있다.

일군들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는 인민중시의 정책이다.

이러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조선에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가장 철저히 옹호되고 인민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앞당겨 꽂혀나고 있으며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고 있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인민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입장을 지니고 인민을 끌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해주는 숭고한 인민적 풍모를 지닌 정치지도자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 수 있다.

오늘 조선에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세기와 세기를 넘어 계속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제도상에서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사회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최고화신이신 절세위인들을 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데 있다.

인민을 정치의 대상으로 가 아니라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타월한 위인들을 모시여 조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강성부흥이어 문을 열고 있다. 이 모든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 봉사기지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광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꽂고 오신 화원을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꽂고 계신다.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만들어 모실 마음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본사기자 유선화

유리한 투자환경이 보장된다

—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리철석과 본사기자의 문답 —

개발구법 등을 통하여 알수 있다.

기업 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세금정책과 함께 소득세, 자원세 등 여러 가지의 세금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금에 비하여 훨씬 적으며 세율도 매우 낮다. 레를 들어 기업소득세 기준은 결산리윤의 14%,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0%이며 특혜판세의 적용, 토지리용에서의 우대 등 많은 특혜도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하부구조 개발기업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는

데 그 기업들의 재산과 하부구조 건설, 공공시설 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관광업, 호텔업 등 수익성이 높은 대상들의 경영권 취득에서도 우선권을 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지금 위원회에서는 지대와 관련한 발전전략을 작성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리고 있으며 각 지대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특수경제지대들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국가가 특별히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나라의 특수경제지대에서는 투자, 생산, 무역, 봉사 등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고 있다.

기자: 특수경제지대 관계 법들과 그 실행을 위한 규정 세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리철석: 우리 나라에는 외국 투자기지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 법률적 티켓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경제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에서는 2010년 12월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 작성되고 2011년 6월 현지에서 공동개발대상착공식들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 9월 이후 지대관리위원회 사무청사들의 착공을 선포하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부국경 판문도시인 신의주시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하여 지난 시기 많은 외국 투자기지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땅으로 되었었다. 현재는 개발을 위한 신의주 대중화 개발 합영 총회사가 설립되어 남먼저 차지한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강령 국제 록색 시범 기지,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은정 첨단 기술 개발구, 원산 관광지대, 신평 관광 개발구 등 각 도의 유리한 지역들에 개발구들이 개통되으며 국제적인 가공 무역 기지, 화물류 통지역으로서의 발전 전망이 매우 큰 특수경제지대들이 있다.

기자: 이 모든 것에 대한 투자의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리철석: 튼튼한 경제 기술적 토대와 절대적으로 안정된 사회 정치적 환경은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권위 있는 투자 법률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공화국과 세계 일류급 대학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과 모두가 중등 교육 이상의 지적 능력을 소유한 노동력 또한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해 주고 보다 큰 투자 기회의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투자의 새로운 활무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 * *



송성희

지난해 11월말경의 어느날, 청신한 대기를 누비며 평양창공 높이 날아오르는 려객기의 탑승객들속에는 고려심청회사 사장인 송성희녀성도 있었다.

얼마전에도 해외출장을 다녀온 그는 유럽의 섭나라 말따로 가고있었다.

려객기가 비행고도를 잡고 날기 시작하자 몸을 등받이에 밟친채 그는 곧 상념에 잠겼다.

검푸른 임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전설속의 심청이처럼 로동당시대의 심청이로 한생을 살아갈 뜻을 품고 안경봉사를 해주는 고려심청회사를 내온 송성희,

그때로부터 25년세월 수십만 개의 안경을 봉사하는 그에게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다.

며칠전 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에 의하여 주체102(2013)년 11월 13일 전국과학자, 기술자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송성희 사장에게 왔다.

지난 기간 안경에 의한 눈의 림상학적굴절이상교정의 최량화

심청, 하늘을 날다

기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론문을 발표하여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과학,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경봉사를 성의껏 한 송성희사장이 이 대회대표로 선출된것이였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치고 누구에겐들 제게 필요한 안경이 없으랴만 원수님께서 아끼고 사

개의 안경이 대회전야에 마련되었다.

안경을 받아든 대회참가자들은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력을 걱정하여 안경까지 해주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과학자들에게 더 밝은 눈을

랑하며 내세워주시는 그들에게 더 좋은 안경을 마련해주자.)

그리하여 송성희사장은 거기에 드는 많은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예전에 없었던 해외출장을 불시에 하게 되였고 뒤이어 안경봉사를 위한 긴장한 사업을 벌리였다. 송성희사장과 리기철, 김금주, 박광월, 박정화 등 부원, 로동자들이 대회참가자들의 숙소에서 시력을 재고 회사에서 안경을 제작하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일하였다. 이렇게 수천

대회는 예정대로 열리였다. 송성희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날로 된것은 대회가 있은 다음날인 11월 14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하여 촬영장에 나오시였다. 폭풍같은 《만세!》가 터져올랐다.

(어제는 몸소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

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를 서한으로 대회장에 보내주시더니 오늘은...)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지난 날 자기 일가와 자기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믿음이 그 순간에 다시금 어려와 눈시울이 젖어듦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1960년 대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로인들이 《수상님, 언제면 우리도 안경을 사쓸수 있습니까? 일을 더하고싶은데 눈이 보이지 않아 책도 볼수 없고 일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울리는 청을 받으시고 당시 광학유리생산협동조합

었다고 치하해주시였으며 주체사상탑 봉화강질유리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송성희네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조성원들을 찾아가 안경봉사를 해주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송성희가 해방직후 애국적인 기업가로 활동한 송대관의 딸이라고, 참 기특하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회사종업원들의 원군미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송성희동무가 평가할만 한 좋은 일을 하였다고, 지난 시기에도 원군을 많이 하였다는 데 쉽지 않은 동무라고, 그 집안은 대대로 애국주의가 높은 집안이라는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

(위대한 대원수님들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나의 아버지 송대관이 애국열사릉의 높은 언덕에서 영생하는 삶을 빛내일수 있었고 오늘은 내가 로동당시대의

이 아니겠는가. 진정 백두산절세위인들은 지난날 기업가라도 애국의 길을 걸으면 그는 물론 그다음 세대도 또 고려심청회사 부사장을 하는 내 아들 선우명호처럼 그다음 세대도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주는 사랑과 믿음의 화신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송성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례하시며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말따 모스트시에서는 송성희 사장을 귀빈으로 맞아주었다.

오늘도 송성희사장은 안경봉사뿐아니라 누구나 자기 기호에 맞는 조선옷을 해입을수 있도록 서비스들을 갖추어놓고 봉사해주는 인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 선군시대의 심청이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며 애국충정의 길에 서있다.

글 본사기자 윤원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외국기업파의 합작 (말따에서)



조선옷을 더 잘 만들어 봉사하도록

관리위원장을 하던 송성희의 아버지 송대관에게 안경을 만들데 대한 파업을 주시고 능력있는 기술자들과 귀한 설비들까지 보내주시였을뿐아니라 100만개의 안경을 생산했을 때에는 잘 만들



비타민C—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전 우리는 평양의 통일거리에 있는 비타민C공장을 찾았다.

비타민C, 이것은 현시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약리작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생활에서 수요가 제일 높은 비타민중의 하나이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그 소비량은 년간 10여만t이나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비타

민C는 면역을 높여주고 종양을 비롯한 각종 질환 등의 치료와 로화방지에 쓰이며 식료품의 항산화제와 음료 및 젖제품 등의 영양첨가제, 맥주의 부페방지제 그리고 화장품 공업과 축산부문 등에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투쟁으로 들끓는 공장의

꿋꿋을 돌아보았다.

공장은 두개 호동의 생산건물과 여러개의 보조건물로 되여있었다. 기본생산공정을 보면 크게 발

효공정, 추출공정, 전화공정, 정제공정, 폐수처리공정이다. 그리고 공장에는 생산균주의 보장 및 공정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균준비실과 균검사실, 무균조작실, 분석실로부터 제품출하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첨단기술이 안반침된 설비들로 그흔히 갖추어져 있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공정이 DCCS(분산형 컴퓨터 조종체계)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 및 자동조종되고 있었다.

공장일군인 림명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자고 한결같이 일떠서 생산한 비타민C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여러 부문에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종



비타민C 결정 분리 작업공정

제품의 질에 대한 호평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933년 스위스화학자 타데우스 라이히스타인에 의해 비타민C의 공업적인 생산방법이 처음으로 발명된 때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비타민C생산을 시도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하지만 품이 너무 들어 지속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에도 높은 생물공학기술과 첨단설비보장이라는 조건으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이곳 종업원들이 무척 돋보였다.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자체의 힘으로 앞선 기술에 의한 비타민C생산군



현장에서의 협의회

주와 그 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 동시에 년간생산능력이 큰 우리식의 현대적인 생산기술

공정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우리는 비타민C와 더불어

각종 질좋은 제품들이 흘러들 우리 생활을 그려보며 공장의 이모저모를 렌즈에 담았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미생물발효연구를 심화시키는 연구사들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로대 마련

평양에 있는 국가과학원 중
앙버섯연구소가 창립된지는 40
여년이 된다.

지난해에 연구소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꾸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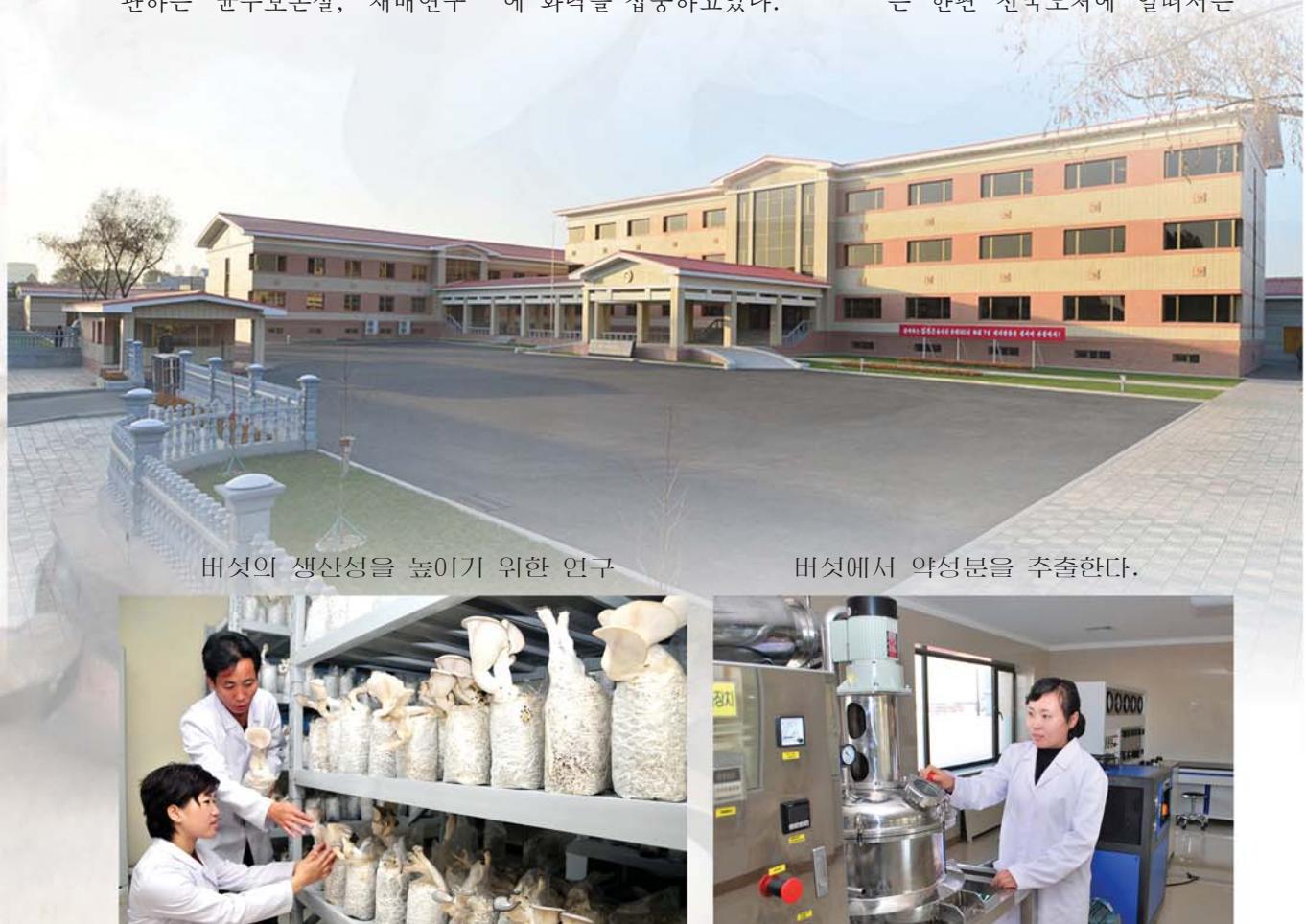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되고 무진화와 지역에 의한 난방체계가 도입된 연구소에는 버섯재배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원만히 할수 있는 최신파학연구설비와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더우기 각종 벼섯 품종들을 보
관하는 균주보존실, 재배연구

실, 육종연구실, 기질연구실 등
과 육종 및 품종검증실을 비롯
한 각종 실험실들은 이곳 연구
소의 첨단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베
섯재배장은 물론 사무실, 기본
청사와 보조청사를 연결하는 외
랑, 현관부, 휴식장 등도 훔잡
을데 없다.

여기에 맞게 연구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하여 주신 파업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버섯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버섯에서 약성분을 추출한다.



연구사들은 원종균과 버섯재배기질생산을 위한 중간공장파재배온실들의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를 자동조종하여 버섯재배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버섯재배장에서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위한 실천적인 자료들을 확정하고 있다.

연구 확정된 버섯 품종들은 계
절별, 지역별에 따라 전국의 버
섯 재배 기지들에 보내주고 있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버섯 품종의 육종과 재배기술 완성, 종균 생산 보장에 큰 힘을 넣는 한편 전국 도처에 일떠서는



기질실험실에서

버섯공장설계에 필요한 기술파
제서를 작성하고 전국적인 버
섯재배기술강습을 조직하였으
며 생산현장들에 대한 기술지
도를 강화하여왔다.

버섯재배품종의 다양화, 버섯생산규모의 확대, 버섯재배

대용원료의 개발, 재배방식의
집약화, 공업화, 전문화방향으
로 나아가는 세계버섯생산의 발
전추세에 맞게 연구소에서는 여
러가지 식용 및 약용버섯재배
기술을 연구완성하고 지역적특
성에 맞게 기질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버
섯재배에 필요한 종균을 원만
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또한 버섯기질발효기를 비롯하여 연구사업과 버섯재배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설치하여 놓고 연구사업에 리용하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에서는 체세포
교잡에 의한 느타리버섯의 새

품종육성기술과 다포자 및 단포자분리에 의한 벼짚벼섯우량계통을 선별하는데 성공하여 출발계통보다 수확성이 높고 우리 나라의 기후와 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육성에서 성과를 이룩

하였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벼섯재배
기술들에 관한 연구사업을 벌
리고 있다.

연구소에 훌륭히 꾸려진 전자
도서관과



송이버섯연구에 대한 국제 학술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소로 되고 있다.

오늘 연구소는 국제송이버섯 학술발표회, 국제송이버섯연구 토론회, 국제버섯재배기술강습 등에 참가하여 다른 나라들파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온 나라에 벼섯생산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연구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학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금상을 받은 조선민족음식들을 놓고

참가자

유지성: 조선617무역회사 과장

김영일: 조선료리협회 부장

라숙경: 옥류관 기사장

리술애: 옥류관 료리사

연 옥: 본사기자



유지성

봉사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에서 온 26개 회사들이 각기 매대를 차려놓고 료리를 직접 만들어 전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연평가는 어느 나라의 매대가 제일 흥성이고 판매액수가 많은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손님들에게도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동강전시관의 봉사자들은 주방에서 가공하여 85%정도 완성한 료리들을 가지고 나와서 텁혀주거나 간단한 료리들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신선로, 평양랭면, 평양온반, 소적쇠구이와 김치전, 해물전을 비롯한 각종 전류들, 통배추김치

등 30여가지의 전통적인 민족음식들은 손님들이 줄을 지어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김영일: 조선민족음식이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그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제1차 아시아식품축전소식에 접한 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식생활양식을 개선하고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을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찍부터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습니다.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에서 피줄, 언어, 옷차림 등과 함께 그 범위와 종류에 있어서 친태만상을 이루고있는 식생활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로, 평양랭면, 단고기음식, 메기료리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토배기료리들은 물론이고 닭고기 쟁반국수, 강냉이국수와 같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가르쳐주신 음식을 꼽자면 끌이 없습니다.

라숙경: 정말 그렇습니다.

주체49(1960)년 8월에 준공된 우리 옥류관에 만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자욱이 수없이 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도 평양의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새로 건설한 인민의 봉사기지를 옥류관이라고 부르도록 하여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옥류관을 찾으시여

인민들과 꼭같은 국수를 드시며 평양랭면의 질을 알아보기도 하시고 주방에까지 들리시여 평양랭면의 진미를 살리는 방법과 육수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메밀국수는 가루를 잘 내는것과 함께 김치꾸미를 맛있게 두어야 제맛이 난다고 일깨워도 주시였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옥류관에 나오시여 운영실태를 료해하시다가 옥류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는 두달남짓한 기간에 두개



김영일

의 별관을 더 일떠세우도록 해주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군님께서는 옥류관에 료리전문식당을 세워주시고 메추리료리, 자라료리, 철갑상어료리, 연어료리 등 명료리들을 만들어 평범한 인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인민들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높은 음식을 먹이시려고 가공방법과 음식의 질에 대한 높은 요구성 까지 제기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렇듯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속에 옥류관은 갖가지 민족음식들로 소문을 내는 민족료리의 원종장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민족음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조국인민을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에 넘치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성: 옳은 말입니다. 이번에 경연심사위원들과 손님들은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펴들고 한결같이 《조선사람이 제일이다.》, 《조선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입안이 산뜻하고 깨끗하며 감칠맛이 있어 좋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의 우수성, 현대조선 음식문화의 발전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양랭면, 김치를 비롯한 료리들은 말할것도 없고 신선로를 찾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리술애: 저는 옥류관에서 신선로를 전문으로 만들고있는 료리사입니다.

금수강산으로 불리우고있는 우리 나라는 가는 곳마다 산천이 수려하고 어디 가나 맑은 공기가 흐르고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속에서 마련된

상식

두부비지는 몸만의 《때》를 씻어준다

봄안에서 생기는 독소를 봄밖으로 내보내는 대 《청소》를 하는것이 바로 단식료법이다.

단식해서 3일정도되면 새까만 숙변이 나온다. 즉 이것은 오래동안

봄안에 있던 때나 진인데 이것을 봄밖으로 내보내면 내장들이 신선해진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지 단식한다는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단식하지 않아도 봄안의 《때》를 씻어주는 식품이 있다. 그것이 바로 두부비지이다. 두부비지는 홍당무우를 섞어서 끓여먹어야 효과가 있다.

단고기료리와 함께 36년



박성숙

평양의 통일거리에 푸른 기와를 엎고 덩실하게 들어앉은 평양 단고기집은 조국인민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속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지금껏 먹어본 단고기중에서 최고!』, 『진짜 단고기맛은 내 조국에서 알게 되었다.』, 『단고기료리는 평양의 명료리, 조선의 유품료리!』 ...

우리는 단고기료리로 소문난 비결을 알고싶어 평양단고기집을 찾았다.

이곳에서 20여년을 일해온다는 봉사부원 리옥희는 말하였다.

『단고기료리가 민족적향취가 진하고 먹어본 사람 누구나 감탄 하여마지 않는 유품가는 료리로 이름을 떨칠수 있게 된데는 박성숙지배인의 지성과 노력이 깃 들어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배인처럼 단고기료리를 잘하여 로령영웅이 된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다.』

우리는 이곳 종업원들로부터 박성숙지배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식당의 얼굴

대동강구역종합식당에서 료리사로 일하던 박성숙이 어느 한 단고기집책임자로 일하게 된것은 주체67(1978)년부터였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식당에서 봉사한다는 음식이라야 기껏해서 단고기국과 밥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질이 낮고 단고기의 고유한 맛을 잘 살리지 못하다니니 손님들의 발길이 영 끊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러한 실태는 책임자사업을 시작한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다.

—어떻게 하면 식당을 손님들이 즐겨 찾고 흥성거리는 봉사기지로 올려세울수 있을가.

문제는 단고기음식의 질을 높

이는것이였다.

사실 단고기음식에 대해서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그였다.

하지만 그는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민족고전들의 갈피갈피에 적혀진 단고기와 관련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지방별 단고기 음식의 특징들을 찾아내기 위해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곳을 오갔다. 그리고 장철 구평양상업대학의 교원들과 단고기음식을 잘하는 식당들의 유능한 료리사들을 찾아 걸음도 많이 하였다. 어떤 때에는 고기의 피를 뽑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물을 끓이는 방법, 양념을 만드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다시 배우느라고 여러날을 보낼 때도 있었다.

단고기음식의 비법들을 찾아내는 나날에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것은 조선민족료리의 우수성에 대한 공지였다. 그것은 유구한 력사를 가진 민족전통음식인 단고기료리를 잘하여 조국

봉사성을 높이도록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온 세상에 소문나게 하리라는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후 식당은 자기의 면모를 찾게 되었다.

그때부터 박성숙은 종업원들에게 『료리의 질은 곧 우리 식당의 얼굴이다.』라는 말을 자주 강조한다고 한다. 그 말은 식당일꾼들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주체81(1992)년 식당은 새로 일떠선 평양단고기집으로 옮겨 앉았다.

창안의 명수

평양단고기집의 주방장 김영숙은 말하였다.

『지배인의 탐구심과 정열은 대단합니다.

나이가 70인데도 새로운 료리를 창안할 때면 젊은 사람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평양단고기집에서 봉사하는 료리는 단고기국밥을 비롯하여 70가지나 된다.

그 료리들의 대부분이 지배인의 착상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식당이 조업을 시작하였을 때였다.

어느날 지배인은 종업원들에게 단고기라는 원자재 하나를 가지고 등심, 등뼈, 뒤다리 등 부위별로 여러가지 료리를 만들수 없겠는가고, 그렇게 하면 수십 가지의 료리를 내놓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제안은 료리사들을 당황케 하였다. 한것은 자기들뿐 아니라 단고기료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식당에서도 아직 그러한 료리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후 료리사들은 처음보는 단고기료리 몇가지를 마주하게 되었다. 색갈파 냄새가 고상하면서도 향긋한 료리는 단고기고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느끼하지 않았으며 아주 독특하였다.

단고기등심찜과 단고기갈비찜, 단고기뒤다리찜 등 그의 착상에 의하여 생겨난 료리들은 후에 명료리로 등록되었다.

그때로부터 료리사들속에서는 료리창안바람이 일어 오늘에는 70가지로 늘어났다.

새로운 료리들을 발굴하고 창안하기 위한 박성숙의 탐구는 오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단고기료리와 함께 36년, 그

손님들의 구미애 맞는 료리를 위해



나날은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지니고 민족의 전통음식인 단고기료리를 더 잘 만들어 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기 위해 노력해온 나날이였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조선속담 (계으름)

—감나무밀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만 바라는것을 비웃어이르는 말.

참고: 감나무밀에서 입벌리고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겠다

누워서 홍시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늘밭의 매미신세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편안히 지내는 늘어진 신세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귀뚜라미 풍류하겠다

논에 김이 우거져 귀뚜라미가 짓들어 울겠다는 뜻으로 계을려서 논김도 매지 않은것을 풍자하여 이르던 말.

—나간 사람 뒷은 있어도 자는 사람 뒷은 없다

일하려 나간 사람의 뒷은 따로 내놓아두어도 움직이기 싫어서 일어나지 않고 자는 사람에게 줄 뒷은 없다는 뜻으로 일하지 않고 계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밥한지옆에서도 끊어죽겠다

수완이 없고 몹시 계으름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계을려서 일을 하지 않는것을 욕으로 이르는 말.

—이미에 땀을 내고 먹여라

노력한 사람에게 성파가 차례져야 함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로 놀고먹는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



조선옷 제작자들

여났고 부모들과 함께 조선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진달래이다.

우리는 민족이 다른 그에게도 매우 잘 어울리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자세히 보았다.

그가 입고 있는 조선치마저고리는 뽀얀 흰안개빛이런듯 하얀 바탕천에 크고 작은 진분홍색 진달래꽃잎들과 억센 가지, 푸른 잎새들을 방불하게 새겨 넣은것이라든지 고유한 조선옷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키와 몸매에 잘 어울리게 재단을 하고

얼마전 민족의상제작단을 찾은 우리는 조선옷전시장에서 한장의 사진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팔레스티나녀성 진달래가 결혼식날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찍은 사진이였다.

20여년전 평양산원에서 태



민족의상제작단의 조선옷창작가들

바느질을 한것을 보면 품을 들여 지었다는것이 한눈에 알리였다.

진달래, 그 이름처럼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결혼식 첫날옷에 잘 반영되어있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민족의상제작단 단장 김계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 그의 결혼식옷을 조선치마저고리로 지어달라는 주문을 받았을 때 우리 제작자들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조선옷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조선녀성들의 인체적특성과 성격, 환경과 기호 등에 맞게 발전되어왔기때문에 외국인녀성에게 어울릴수 있겠는지 은근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기술준비원이며 창작실 실장인 리경옥을 비롯한 창작가들은 천질과 색갈, 무늬를 어떻게 선택하여야 진달래녀성에게 잘 어울릴수 있겠는가를 두고론의를 거듭하였다.

그들은 여러날에 걸쳐 수많은 도안을 창작하여놓고 작품심의와 합평회를 진행하였다.

마침내 제작단의 모든 제작자들의 호평을 받은 도안으로 진달래의 첫날옷이 완성되었다.

그후 진달래가 보내온 결혼식사진을 돌려보며 제작자들 모두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눈앞에 지난 기간 민족의상제작단에서 지은 조선치마저고리

를 입고 더없이 좋아하는 해외동포들과 조국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주문자들과 조선옷제작자들의 기쁨은 정비례한다고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음에 김계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주체92(2003)년 9월부터 중구역 련화2동에 자리를 잡고

하였다. 그들이 제작한 옷들은 해마다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조선옷전시회들에서 여러 차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외동포들뿐아니라 조국의 인민들도 결혼식옷은 물론이고 자식들의 돌잔치옷, 명절옷 등 조선치마저고리를 수많이 주문하고있다.

민족의상제작단의 모든 제작자들은 한벌의 조선옷을 만들어도 나날이 발전하는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와 감정에 맞게, 민족성이 철저히 반영되게 만들고 있다.

무릇 훌륭한 창조물들

조선치마저고리를 만들기 시작한 민족의상제작실(당시)은 규모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조국인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조선치마저고리를 잘 만드는 곳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다.

조국인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의 들어나는 수요에 맞게 제작실은 1년후에 제작단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제작단은 여려명의 창작가들을 포함한 수십명의 능력있는 제작자(옷가공자 포함.)들로 꾸려졌다.

그들은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과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조선옷가공기술에서 경험도 풍부

탐구와 사색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창작가들은 매달마다 중앙식물원과 꽃재배온실, 인민대학습당 등을 찾아 취재한 자료들을 도안창작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있다. 창작가의 의도에 맞게 조선옷을 잘 가공하여야 훌륭한 조선옷이 창작될수 있다.

가공실 실장 김혜옥은 손님들의 서로 다른 체격과 성격, 직업, 취미, 얼굴색 등 여리가지 요소들에 맞게 조선치마저고리를 짓도록 가공자들을 이끌고있다.

하기에 이곳 제작자들은 『조선치마저고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미술작품과도 같다. 우리가 얼마나 품을 들이는가에 따라 조선옷의 품위가 결정된다.』고 말하고있다.

민족의상제작단은 오늘 평천구역 봉학동에 자리잡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하나의 제품을 가공해도 창작가의 의도가 살아나도록



조선치마저고리의 특색을 살려간다.

만복을 위해 가능한 사업을

얼마전 우리가 평양제1백화점을 찾았을 때였다.

특별나게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는 매대앞에 이르니 그곳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침구류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봄가을이불, 여름이불, 겨울이불, 애기이불, 로인이불, 결혼첫날이불, 베개류, 침대보, 이불씩 우개…

제품들마다에는 하나같이 《만복》이라는 상



새 도안 품평회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그는 종업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시집, 장가보낼 때 밤새워 한틈, 두 뜡 이불을 꾸미는것처럼 우리

표가 붙어있었다.

만복, 불러만 보아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이름이였다. 그것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복이 가득 넘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온 만복합작회사의 상표였다.

돌이켜보면 회사는 중국 단동대동강식품유한공사 총경리 전정학동포와의 협력밑에 주체95(2006)년에 설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일 필수적인 이불과 가공식품, 건강음료를 비롯한 제품들을 자기의 생산 및 판매, 수출지표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그들의 기호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신해 나감으로써 모든 제품을 세계적인 인기제품으로 만드는것을 자기의 경영전략으로 내세웠다.

그 실현을 위해 회사의 황금향, 리영애, 황예봉, 김경주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형성도안으로부터 마지막 포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불생산과정만 놓고보아도 그들은 조선민족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걸감은 은근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선정하고 질좋은 목화솜과 새털을 원자재로 하여 이불을 촉감과 텁성이 좋고 포근하고 가볍게 만드는데 많은

품을 넣고 있다. 특히 사장 황금향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준과 생활상요구를 제품들마다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새 기술자료수집과 탐구, 도안창작에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창안한 이불의 가지수는 수십여 가지에 달하며 그 과정에 그린 도안만 하여도 수백매에 이른다고 한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시집, 장가보낼 때 밤새워 한틈, 두 뜡 이불을 꾸미는것처럼 우리



국제상품전람회에서도 인기가 높다.

상식

조선녀성의 미덕

일찍부터 우리 나라는 동방례의 지국으로 불리워왔다.

동방례의지국, 이 말속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조선녀성들이 지닌 문명하고 고상한 미덕에 대한 찬사도깃들어있다.

조선녀성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심에 불타는 미덕을 지니고있다.

외유내강(겉으로는 부드려우면서 속으로는 강하다는 뜻.)의 성품을 소유한 근면한 조선녀성들은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도 남성들 못지 않았다.

『설죽화전설』(11세기초 외래의 침입을 반대하여 싸운 고려처녀 설죽화를 비롯한 인민들의 견결한 반침략애 국투쟁을 보여준 전설)에서 보여주다싶이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마다에는 조선녀성들의 용감성과 애국심에 대한 력사이야기가 수없이 깃들어있다.

조선녀성들은 예로부터 사랑에서 순결하고 정조관념이 강했다. 조선녀성들은 한번 맷은 사랑을 끌

는 제품생산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만든 제품들은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와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를 비롯한 많은 계기들에서 최우수상과 1등상을 받았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중국과 태국, 카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만복》상표를 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깊다. 기쁨과 슬픔도 제일처럼 함께 나눌줄 알았기에 조선녀성들은 언제나 자기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았다.

색다른 음식이 하나 생겨도 이웃들과 나누어먹었으며 마을에서 식량이 떨어진 집이 있으면 살림이 넉넉치 못해도 나누어먹군 하였다.

길가던 손님이 날이 저물어 집에서 묵어가게 되면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성의껏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특히 남달리 모성애가 깊었던 조선녀성들이 부모잃은 어린이들을 보면 자기 아이처럼 극진히 돌봐준 미덕은 어느 마을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이었다.

참으로 조선녀성들이 지닌 미덕은 근면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하여온 우리 민족이 자랑할만한 미풍양속이다.

오늘 조선녀성들의 미덕은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아래 더욱 활짝 꽂펴나고있다.

세금없는 나라 공화국을 두고

얼마전 본사기자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금 없는 공화국에 대하여 조선변호사협회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 부소장 리원룡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 공화국에서 세금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가.

답: 공화국에서의 세금제 폐지는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으로 발포되었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1.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3.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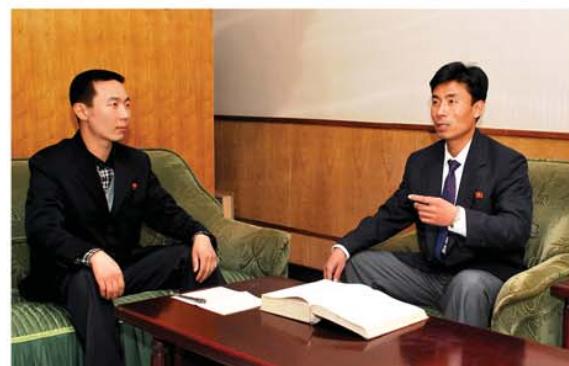
법령의 발포에 의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민들의 꿈이 현실로 되었고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에서는 인민정권을 수립한 첫 시기부터 루진소득세(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세)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협동경리에 세금의 감면특전을 줌으로써 자본주의적 경리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하면서 그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하였다. 그 이후인 주체55(1966)년에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1974년에는 모든 세금을 종국적으로 없앴다.

문: 공화국에서는 세금제도가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가.

답: 세금이란 국가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는데서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
부소장 리원룡 (오른쪽)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무상납부시키는 소득의 재분배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수입의 기본항목으로 되며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국영 경리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그의 경제활동령역이 확대되므로 개별적 공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있어야 할 경제적 기초가 없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국영 또는 협동경리에서 조성되는 사회 순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재분배 형태로 국가 예산에 받아들여 인민 생활향상을 비롯한 자기의 경제적 및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수정보충된 사회주의 헌법 제2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문: 공화국에서 개별적 공민들이 국가에 지불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답: 우리나라에서 사용료는 주민들이 국가의 서비스와 시설물 등을 이용한 대가를 무는 돈이다. 여기에는 국가가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어준 주택의 사용료, 난방 사용료, 전기 사용료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정한 거거나 다름없는 료금이다. 국가는 이 사용료를 인민적 시책을 더 많이 실시하는데 보충리용하고 있다.

문: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세금을 적용하는가.

답: 공화국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세금제도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설정한 법적 조치이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무역 활동을 하거나 해당 나라에 거주하고 사는 경우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

* * *



그가 세운 기록

았던 것이다.

10월 21일 가요 《단숨에》의 선률이 울리는 속에 엄윤철 선수가 출전하였다.

그는 순간 채기와 빠른 추기,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 대회 남자력기 56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경기과정의 외상은 일시적 인 것이다. 오늘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 그 기록은 다른 나라 선수들이 세우지 못하는 조선의 기록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 대회 56kg급 경기에서 종합 1등을 한 조선의 엄윤철 선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그의 대답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많은 력기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은 조선의 엄윤철 선수와 중국 선수에게 집중되었다. 두 선수의 기록이 다 간단치 않

시아구락부 력기경기 추켜울리기에서는 169kg을 성공시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뛰르끼예선수가 세운 168kg의 세계 기록을 10년 만에 돌파한 것으로 되었다.

당시 뛰르끼예선수는 경기 후 기자들 앞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써는 앞으로 이 무게를 더 이상 초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나아린 엄윤철이 그 기록을 돌파하였다.

나이는 23살, 보통 키보다도 작을 사한 체격을 가진 엄윤철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다. 그가 력기를 시작한 것은 12살 때부터였다.

원래 그의 부모들은 윤철에게 축구를 시키려고 하였다.

그에게서 력기를 할 수 있는 남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력기 예로 이끈 것은 청진시 청소년 체육 학교의 신갑준지도교원이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력기를 시작하였으며 주체93(2004)년에는 압록강체육단으로 소환되었다.

체육단으로 떠나던 날 그는 부모들에게 꼭 영웅이 되여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수 생활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학생들 파어울려



《조국은 내 삶의 요람입니다》

지 않았다. 훈련은 강도가 높았다. 하나의 기술동작숙련을 위해서만도 수백번의 반복동작을 하다보니 그의 온몸은 항상 땀으로 젖어 있었다. 힘들었다. 너무도 집생각이 나서 그는 생각끌에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갔다.

몇년만에 집에 온 아들을 애 허놓고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하였다.

『네가 체육단으로 떠날 때 뭐라고 했니. 영웅이란 말을 넌 너무 쉽게 한 것 같다. 영웅이란 누구나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밤으로 떠나가거라.』

그후 그는 순간이나마 나약해졌던 자신을 채찍질하며 훈련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경기성적도 높아졌다. …

제30차 올림피경기대회후 그는 로령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령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아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눈에서는 맑은것이 흘러내렸다.

『우리 윤철이를 영웅으로 키워주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윤철이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 말뿐이지 조금도 한것이 없습니다.』

그는 로령영웅칭호만이 아니라 김일성청년영예상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구비된 고급주택과 승용차까지 받았다.

친부모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짙을 찾아주고 체육인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하였지만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준 조국의 사랑에 더 높은 경기성과로 보답할 결의를 안고 그는 오늘도 새로운 세계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맹렬히 훈련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박수원

지난해 10월 평양의 룽홍네거리에 쌍벽을 이루며 훌륭히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구현되고 생활상편의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살림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어 초교층 살림집의 2호동 2현관에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를 데운 승강기가 멈춰선 곳은 17층이였다.

그런데 거기가 아담하면서도 특색있게 꾸려진 실내휴식터일 줄이야…

장기와 윷놀이 등 각종 오락은 물론 학습도 할수 있게 돌의자, 돌상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 바닥에는 타일을 붙인 부분과 차

연돌포장을 한 부분도 있으며 잔디밭과 화단까지 꾸려져 있어 그야말로 야외의 공원에 있는 듯한 감을 주었다.

놀라움속에, 경탄속에 실내 휴식터를 돌아보며 내려오던 우리는 13층 1호집에 들려보았다. 혁학부 교원 강수일의 집이였다.

이 집 주부인 리경애는 우리가 오게 된 사연을 알게 되자 반색을 지으며 우리를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살림집의 복도와 공동살림방사이의 출입구를 완만한 꼭선미가 나게 아치형으로 처리하고 두개의 기둥으로 장식한것이 참으로 특색이 있었다.

우리는 리경애와 함께 공동살림방, 서재, 부부방, 부모방, 자식방, 식사칸 등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매방마다 차이는 있으나 벽지의 색갈과 조화되는 가구들과 가정주부들의 마음에 꼭 들게 꾸려져 있는 부엌, 더운물을 요구대로 쓸수 있는 물가열기며 조명의 세기를 임의로 조절할수 있는 식사칸의 조명등, 편리한 위치에 설치된 랭온풍기, 집에서도 학습과 교수준비를 하는데 편리하게 서재에 놓여진 당반식책장, 공동살림방에 놓여있는 액정TV 등 매방의 어느 가구, 어느 비품 하나에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위하시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더우기 공동살림방벽에 주련이 걸려있는 4개의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증은 이 집의 자랑중의 자랑이였다. 수학력학부를 졸업한 남편과 딸아들, 둘째아들 그리고 컴퓨터과학대학을 졸업한 딸며느리에 대한 리경애의 사랑은 끝이 없을상신했다.

그의 이야기는 남편 강수일이

들어오는바람에 끊기였다.

우리가 소개를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제가 이런 호화주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받은 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났어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랑과 믿음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대바르고 고지식한 그의 진심이 어린 말이였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그 품이 고마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그때에 미립갑문화 자강도의 중소형 발전소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등에 나가 전력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친 그였다.

교육자로서 성실히 일해온 그의 공로는 높은 국가수훈과 박사, 부교수의 칭호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안해인 리경애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이사할 때였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하도 오래 살다 나니 이런 복을 받아안았다고 기뻐하였고 시누이는 한생 고지식하게 살아온 오빠가 큰 복을 받아안았다고 눈굽을 적시였습니다. 또 제자들도 축하편지와 함께 전화를 연방 걸어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대하느라니 정말 교육자들을 내세워주는 조국의 고마움에 더욱 가슴이 젖어들었습니다.』

조선의 교육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조국은 내 삶의 요람이라고 자기의 뜨거운 걱정을 토로하는 강수일과 집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꿈이 현실로 펼쳐지는 조국의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욱 찬란 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집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김학철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새 살림집
에서 가족들
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
강수일





봉봉에 대한 땡길

방대로 간호원이 되었다. 무릇 사람들은 가고 싶어 가는 길은 멀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 나는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서도 간호원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철없던 어린시절 동무들과 소꿉놀이 하나를 해도 간호원 놀이를 하였고 영예로운 조국보위초소에 설 때에도 위생가방을 빙 간호원이 되었다.

지난 기간 나에게 간호장이나 의사가 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간호원이 더 좋다.』고 말해주군 하였

다. 그만큼 나에게는 아픔에 모대기는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아주는 간호원에 대한 친근감과 공지감이 가슴속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언제인가 강원도의 한 군인 가족녀성이 혈압이 거의 0인 상태에서 우리 곁에 실려온적이 있었다.

위급한 그 순간에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수혈파에 보관되어 있던 피가 아니라 생신한 피를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마다 달려와 자기의 피를 먼저 넣어달라고 하였다. 친부모, 친형제처럼 평범한 녀성을 위하여 바치는 마음들은 정말 뜨거웠다. 치료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행되었다. 나라에서 평양산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보내주는 수많은 고가약들이 그 녀성에게도 투

약되었다. 그가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산물과 록용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이 안겨졌다.

그때 담당간호원이었던 나는 어린 두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그 환자의 결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돈 한푼들이지 않고 병을 고친 후 건강한 몸으로 병원을 나서는 시각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나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궁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하였다. 정말이지 우리 여성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을 꽂피우기 위해서라면 백날, 천날밤을 지새워도 힘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날과 달이 흐르고 해가 흘러갔다. 그 나날 나는 간호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비록 크지는 않아도 그것이 곧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된다고 간주하여왔다. 나의 노력과 열정이 환자들에게 친부모형제의 따뜻한 정으로 가닿을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다.

10여년전 평양산원에는 부인 종양파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부터 나는 외래치료실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가정과 나라의 꽃으로 사랑받는 조국의 여성들을 위해 복무한다는 자각을 안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의사들의 오른팔이 되여주고 있다.

오늘과 같이 의료집단과 환자들의 사랑속에 60을 바라보

지적제품 생산자들

얼마전 우리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았을 때였다.

이곳 과학연구부에 들린 우리는 하나의 자료를 보게 되였다. 거기에는 『주체103(2014)년 프로그램개발계획』이라는 표제밑에 올해 대학에서 개발하려는 백수십여건의 프로그램 제목들이 적혀있었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으로부터 경공업, 농업, 교육, 보건, 려객운수 등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부문에 이바지하게 될 그 프로그램들은 제목부터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그 가운데 보다 우리의 흥심을 돋군것은 그 제목들의 옆에 씌여진 프로그램개발담당자들의 직위였다. 한것은 그들모

두가 프로그램개발전문가들이 아닌 각이한 전공분야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인



가치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

것이였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최근년 간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의 개척자들도 그들이였고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전력부문의 큰 경제적리득을 얻게 한 CNC부하전력관리체계의 개발자들도 다름아닌 이곳 교원,



는 나이에도 청춘의 활력으로 일해나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여성들에 대한 당(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사랑과 혜택을 시시각각 느끼고있기에 나를 비롯한 보건일군들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민적 의무를 다해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이 평가해주었다.

이제는 나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였다.

지난해에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의 간호원을 맡며 느리로 맞아들인후 떡돌같은 손자애도 받아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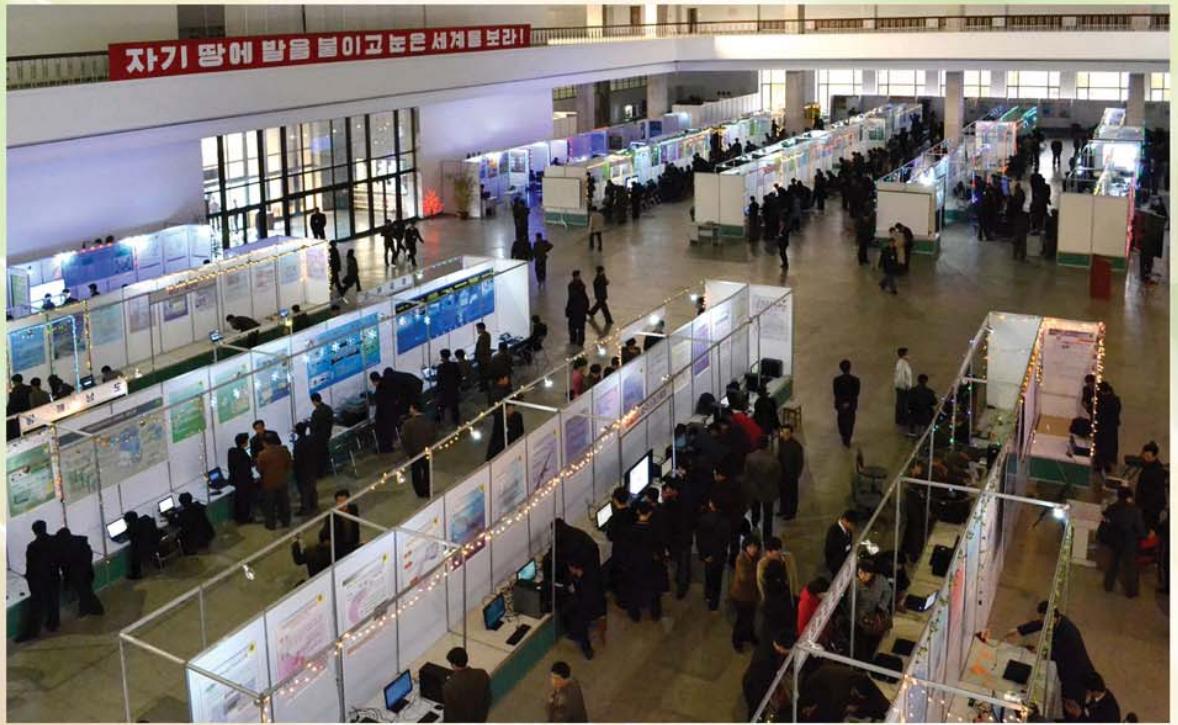
나는 자주 자식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자기의 직무를 사랑하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나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여나가는 영예로운 자리에 세워준 조국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생을 바쳐 힘껏 일해나가겠다.

평양산원 부인종양과
간호원 리명숙



제24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장

연구사들이였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그들의 사색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흘러나와 나라의 많은 부문에서 과학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지난 한해만 놓고보아도 대학안의 정보과학기술대학, 공업경제관리학부, 로보트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다국어 문자인식프로그램, 기본투자의 경제적 효과성 타산교육지원프로그램 2.0, 페스팅 선수 훈련용 로보트 종프로그램 등 140여 건의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작성되었고 그중 많은 프로그램이 평양 기초식품공장과 평양 꼭산공장 등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되어 응용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대학의 교원, 연구자, 학생들은 지난해 가을에 진행된 제24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 근 90건의 프로그램을 출품시켜 프로그램 전시부문에서 대학이 특등을 함으로써 당시 경연 및 전시회 참가자들 사이의 과학기술교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주체 102(2013)년에 진행된 세계적인 인터넷 프로그램 작성 도전경연들마다에서 우승한 팀이 이곳 학생들이고 보면 프로그램개발에 기울이는

대학의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연구부 지도교원 오승벽은 그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누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먼저, 더 많이, 더 쓸모있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 속도가 결정된다.

우리는 조국의 경제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유능한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힘을 넣는 한편 우리들 자체가 프로그램개발자, 지적제품의 생산자가 되려고 한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을 경쟁의 척도로 세우고 높은 과학기술이 집약된 지적제품 프로그램개발에 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을 되새기며 우리는 대학의 여러 연구실, 실험실, 전자도서관의 열람실에 걸음을 옮기였다.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시간을 이어갈 이곳 교직원, 학생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였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중국 단둥시 진흥구 3경가 흥운가원 1605실 강경애조카 앞

모두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어보자

경애야, 그사이 잘 있었니.
집에서는 모두 앓지 않고 건강
한지 무척 궁금하구나.

너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형
제들과 영산이네도 잘 있는지.

다들 만나본지 어느덧 3년이
되였구나. 한해, 두해 나이가
들수록 혈육에 대한 정이 더욱
그리워져 이렇게 편을 들었다.

나랑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건
강하여 잘 있다.

막내 세환이네 부부는 여전히
자기 일에 과몰허 바쁜 나날
을 보내고 있다. 손녀 미원이는
벌써 소학교 3학년생이 되었구나.
지난해부터 평양학생소년
궁전 피아노소조에 다니고 있는
데 이제는 제법이다.

말이 세권이네 아들 철웅이
도 이제는 고급중학교 2학년 학
생이 되었다. 한해 있으면 졸업
이라 얼마나 공부에 열중하고 있
는지 이 할머니에게도 어쩌다
한번씩 오군 한다. 대학에 가는

것이 그 애의 목표란다.

외동딸 혜숙이네 가정도 다
잘 있다. 혜숙의 남편도 후대교
육사업을 하느라 여전하고 네가
제일 고와하던 진향이도 중학교
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있다.

나는 집에서 자식들과 손자
들의 뒤시중으로 날파 달을 보
내고 있다.

지난번 일요일에 세환이네
가족과 함께 룹라인민유원지에
갔었는데 미원이가 너랑 같이
룽라웁등어판에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고모가 보고싶다는 것이
아니겠나.

그 말을 듣고보니 네가 평양
을 다녀간지도 2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너도 잘 알
겠지만 그사이 평양이
많이 달라졌다. 룹라인
민유원지에는 립체를 동
영화관과 전자오락관이
새로 일어서 한겨울에

휴식일에 가족과 함께



도 여름에도 사람들로 늘 붐비
고 있다. 거기에다 지난해 동평
양의 문수지구에 요란한 물놀이
장이 건설되고 미림지구에는 승
마구락부가 건설되구…

여기저기에 공원이랑, 유원지
랑 많이 생겨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다 끊지
는 못하겠는데 정말 많이 건설
됐다. 올해에도 많이 건설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
어보면 건설이 굉장한 것 같다.

우리 일가친척 모두가 함께
모여 저 동평양에 있는 문수물
놀이장에 한번 갔으면 하는 생
각이 떠나지 않는구나.

너의 집식구들이구, 영산이
네 집식구들이구 다같이 평양
에 오너라.



우리 모두 모여 물놀이랑
하면서 실컷 웃으며 혈육의
정을 나누어보자꾸나.

오래간만에 편지를 쓰자니
생각은 뻔한데 글이 잘 안되는
구나.

그럼 이만 쓴다. 모두들
건강하길 바란다.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83인민반 유영옥이모로부터

자기 힘으로 마중하는 채 일

얼마전 우리는 중국 흑룡강 성에 있는 박인자동포의 동생 박용철이 살고있는 황해북도 수안군을 찾았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산으로 꽉 둘러막힌 이 고장이 정말 산 간벽지로구나 하는 인상을 안고 우리는 배미천상류에 자리잡고 있는 읍지구에 들어섰다. 우리는 한 일군의 안내에 의해 마침 군의 연혁사를 정리하고 있는 권병기로인을 만날수 있었다.

《예로부터 드디어 편안한 고장이라고 하여 수안이라고 불렸소. 고려시기인가 어느 왕이 펴신처로 좋은 곳이었다고 해서 불리운 고장이름이였지만 백성들에게는 결코 편안한 고장이 아니었소. 그러던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참다운 인민대

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아래 정 말로 인민들이 편안한 고장으로 될수 있었소.》

자기 고장의 력사를 다루어서인지 로인의 이야기는 정연했다. 오늘에 이르는 수안땅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발전소와 그 건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듯싶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고장사람들이 자체로 발전소건설을 시작한것은 지난 세기 90년대 후 반기 고난의 행군시기였다고 한다.

당시 어디서나 그러했듯이 수안군에서도 제일 큰 애로는 전기문제였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보장해주어 전기걱정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였다. 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부로 안겨든것은 나라의 고마움과 귀중합

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라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체로 모든것을 해결해갈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방도는 군에서 산을 리용하고 강하천을 적극 리용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발전소건설목표를 제기하고 레성강지류인 오동천에 발전소를 일떠세웠다.

로인과 헤여진 우리는 먼저 그들이 자체로 일떠세웠다는 발전소를 찾아 읍지구에서 수십리 떨어진 천암리로 향하였다.

천암리주변의 산경치와 절어울린 발전소건물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수안청년1호발전소》라는 글발을 부각시킨 산뜻한 건물이 우리를 어서

오라 반기는듯싶었다. 걸불안이라고 고르로운 발전기의 동음이 울리는 발전기실이며 조종실 등 내부의 모든것이 높은 수준에서 꾸려져있었다.

발전기실 맞은켠 절벽우에 우뚝 솟아있는 정각과 주변의 산 경치에 어울리게 아담하게 꾸려진 수안휴양소, 수안군청소년체육학교 산중훈련기지들과 규모있게 자리잡은 문화주택들은 이 고장사람들의 일본새와 마음을 엿볼수 있게 하고있었다.

발전소를 함께 돌아본 천암리 일군인 박용철은 말하였다.

『사실 처음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맨손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장사람들은 바로 이 길만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꽂피워 군을 보다 행복한 락원으로 꾸리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신념으로 자연과의 투쟁에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수십m의 언제를 일떠세우고 그 주변을 저렇게 꾸려놓았습니다. 집집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을 보며 저것이 우리 발전소전기라고 소리쳐 부르면서 춤판을 벌리던것이 정말 어제일 같습니다. 아마 중국에 살고있는 우리 누이도



먼거리의료봉사도 받는다.

있었다면 그 자리에 뛰여들었을것입니다.』

첫 발전소건설을 통해 큰 소득을 본 군의 읍지구와 천암리는 물론 군안의 다른 여러 리에서도 어벌이 커져 발전소건설이라는 아름찬 목표를 저저마다 제기하고 물이 흐르는 골들을 막아 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레성강의 지류들인 언진천, 웃먼개, 위라천, 대평천 등에 도전발전소, 철산발전소, 룽포발전소, 수안청년2호발전소, 수안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수십~수백 kW 능력의 발전소들이 건설되어 군에서는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고 한다.

박용철의 이야기 역시 발전

소자랑이였다.

우리는 수안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돌아볼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제손으로 자기들의 행복을 창조하고 꽂피워가는 이 고장사람들의 보람찬 생활이 아름다운 화폭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고난의 친리를 기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삶의 진리를 새기고 제힘으로 행복의 터전을 꾸려가는 이 고장사람들의 신심과 락관에 넘친 오늘의 모습에서 더욱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려질 수안군의 래일을 그려볼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박수원



재능을 꽂피워가는 학생들



특파원 기쁨



리용섭

— 과학연구사업은 창조이기 전에 헌신이여야 하고 정열이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성공의 열매를 거둘수 있다.

이것은 한덕수평양 경공업대학 종합분석소 실장 박사, 부교수 리용섭이 과학탐구의 나날 지켜온 좌우명이다.

— 실장선생은 식료 공업부문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위자라고

말할수 있다. 식료공장들의 현대화와 새 제품개발, 생산공정확립 등 실장선생의 연구성과가 미치지 않은 공장은 아마 드물것이다. 그래서 우리 연구사들은 그를 두고 식료부문의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 그는 열정이 불같다. 분석소에서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속에서도 여러 식료공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적극 도와주고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연구사들의 말그대로 그는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식료학부를 졸업한 때로부터

연구성과를 위해



— 그는 애기젖가루를 만드는데서 어려운 문제로 나선 것은 콩우유와 기름이 혼합되도록 하는것이였다. 그러자면 어느 한 원료가 침가되어야 하였다. 그 것도 량이 적지 않았다. 그때 나라의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그 침가원료를 정상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그런데로부터 그는 그 원료를 전혀 쓰지 않고 애기젖가루를 만드는 방법에 낮을 돌리게 되였다.

탐구와 실험을 거듭하는 과정에 그는 애기젖가루에 필요한 침가원료와 콩이 다같은 단백질의 성질을 가지고있다는데 주의를 돌리게 되였고 그 침가원료를 쓰지 않고도 콩우유와 기름을 혼합시켜 젖가루를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여기에서 착상을 얻은 그는 연구를 심화시켜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애기젖가루를 만들어낼수 있

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야말았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공적이였다.

애기젖가루에 대한 애기어머니들의 평가는 대단히 좋았다.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애기젖가루를 내놓으려고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온 나날엔 참으로 가슴뜨거운 일화들도 많았다.

실험실에서의 사색을 퇴근길에서도 이어가다가 정류소를 헛갈린 일들이 몇번인지 모른다는 이야기,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와서도 책을 펴놓아 안해와 다툼까지 하였다는 이야기, 생활에서 누구나 다 아는 상품가격도 잘 모르고있었다는 이야기 ...

그만큼 그의 마음은 오직 애기젖가루개발에만지향되어 있었던 것이다. ...

그는 오늘도 열정에 넘쳐있다.

신계고구마가공공장의 생산공정확립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새 제품개발,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의 설비현대화, 락랑감자가공공장의 조미료생산공정확립,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한 30가지의 조미료생산 ...

나라의 경공업과 인민생활을 세계적수준으로 옮려세우려는 야심이 그에게 성공의 나래를 달아주었다고 그와 함께 일하는 연구사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늘 과학연구사업에 묻혀 사는 그에게 무슨 멋에 사는가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 새로운 연구과제를 성공시켰을 때의 기쁨은 아마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를것이다. 나는 그 류다른 기쁨속에 산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안해와 함께



나라의 자원, 대래 손손 물려줄 재부

—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변정균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하며 국토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시기에 자리할 같이하여 반갑습니다.

변정균: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은 한두 해사이에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식수사업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주체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항일의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산과 들을 아름답게 가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날을 식수절로 정하였습니다. 나무심기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전망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일수 있습니다.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은 오가산자연보호구와 중앙양묘장을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새겨져있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지고있습니다.

기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야 국토를 보호하고 조국의 산과 들을 사회주의신경으로 변모시킬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변정균: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입니다. 우리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놓고 산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 진행해

애국애족의 한길을 따라

조국의 해외공민단체들 가운데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있다.

총련합회는 주체80(1991)년 3월 3일에 결성되었다.

그때로부터 23년간, 8천수백여일이 흘렀다. 비록 그 나날 복잡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계의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존재를 잊고 지어 여러 나라에서 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총련합회는 언제 한번 자기의 모습을 흐린 적이 없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돌이켜보면 총련합회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통일애국사업을 지향하여 힘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에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산림조성전망계획을 세우고 각 도와 지대별, 필지별 실정을 다시 조사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해마다 10여만정 보에 수억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목재림, 종이원료림, 기름나무림, 산파실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나무심기가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전에 실지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애국사업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투쟁하며 동포들의 생활을 위해 늘 마음을 써왔다.

총련합회의 일군들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때로는 먼길, 밤길을 걸으며 동포들을 한명한명 찾아내며 기증단위인 지부들을 꾸리였고 모범지부쟁취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조직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모든 동포들이 조국을 잘 알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도록 뜻깊은 명절들마다 보고대회와 강연회, 체육경기와 예술공연, 사진전시회와 민족음식품평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한편 총련합회로부터 지부에 이르기까지의 일군들과 지부장들이 동포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도록 함으로써 동포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였다.

조직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울인 총련합회일군들의 노력 또한 그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들은 동포들 특히 새 세대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모두가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혁명전적지답사와 읽은책발표모임,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과의 상봉모임 등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면마다에 다양한 주제의 조국소식과 동포생활, 민족

거리와 마을, 공원, 공장구내에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파일나무들을 심고 원림특화에도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적인 방법으로써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작물과 약초들도 심어 수익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난해 여러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았는데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기자: 나무심기에서 기본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정균: 그렇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게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수준을 원만히 보장하였을뿐아니라 각 도와 군마다에도 양묘장들이 꾸려져 수종이 좋

풍습 등을 담은 잡지 《백두—한나》를 정기적으로 편집발행 하였으며 동포찾는 사업도 근기있게 진행하였다.

총련합회의 이렇듯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동포들속에서는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우리의 노래와 춤을 장려하는 열기가 날을 따라 고조되게 되었고 통일애국을 위한 수많은 애국적소행들이 련이어 발휘되게 되었다. 지난 한해에만도 총련합회안의 길림지구협회와 러녕지구협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를 비롯한 많은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이 조국인민들의 경제 강국건설을 적극 지원하였고 동포사회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힘찬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이러한 과정에 동포들속에서는 김일성훈장 수훈자,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 조국통일상 수상자 등이 배출되어 값높은 삶을 누리고 있다. 하기에 오늘날 동포들 누구나 총련합회를 자기들의 정든 집으로 부르고 있다.

지금 총련합회는 보다 큰 보폭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동포대중의 마음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로 동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변함없이 애국애족의 한길을 걸어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앞으로도 동포단합의 구호드높이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자신의 궤도를 따라 전진할것이다. 하여 조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 애국적인 해외교포조직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갈것이다.

《금수강산》편집부

온 나무모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종이 좋은 나무라도 생물학적특성에 따른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리를 높일수 없고 제대로 자래울수도 없습니다.

봄철뿐아니라 가을철에도 나무를 심을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대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를 심으며 나무의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도록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배합하여 심고 버팀대세우기, 물주기, 김매기 등을 잘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산파 들, 거리와 마을 등에 대대적으로 많은 나무들을 심고 잘 키워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있습니다.

* * *

—인—상—기—

래일이 앞당겨지고 있다

그저 놀랍기만 하다.

조국의 모습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오늘 조국에서는 경제강국과 사회주의 문명국을 지향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있다. 도시와 거리, 주택지구들이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면모로 일신되고 웅장한 창조물들이 날과 달이 다르게 키돋움하며 일떠서고 있다.

2년전에 그 모습을 드러낸 창전거리와 인민극장, 륭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과 통일거리운동센터,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같은 창조물들과 견주듯이 지난해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한 새로운 건축물들이 솟아나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고 있다.

건설부문뿐아니라 경제,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제강국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 끝없는 헌신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領導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領導하고계신다.

지금 우리 재중동포들은 불과 2년도 안되는 기간에 평양을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사실과 이러한 새 면모에서 강성부흥할 조국의 래일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있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 허상숙





참관길에 오른 동포들

고국방문

정방산을 찾은 재중동포들



성불사 기적비를 돌아보며



극락전에서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건 65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지구협회일군, 재중조선예술인 대표단이 정방산을 찾았다.

황해북도 사리원시교외에 있는 정방산은 해발높이 481m로

서 산마루들이 서로 잇닿아 정방형을 이루고 있어 정방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정방산에는 고려시기에 쌓은 정방산성파 898년에 세워지고 고려시기에 고쳐지은 성불사를 비롯한 유적과 유물들이 있다.

성불사에는 극락전을 비롯하여 응진전, 청풍루, 명부전 등 여섯 채의 건물과 4각 5층돌탑이 있다.

이곳을 찾은 동포들은 우리 선조들의 재능과 슬기가 깃들어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애국애족의 넋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으며 극락전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들은 등산로정을 따라 정방산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기묘한 봉우리와 바위들, 푸르청청한 소나무며 참나무, 단풍나무들, 깊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며 여기저기서 우짖는 새소리…

이채를 띠는 봉우리들과 절벽들, 장폐함을 펼친 정방산폭포, 갖가지 꽃들과 함께 울창한 수림 등은 동포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여 동포들은 정방산의 이모저모를 배경

으로 사진도 찍었으며 조국산천을 마음속에 간직하려는듯 식물도 채집하였다.

동포들은 낚시터에서 낚시질도 하고 오락회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흑룡강성 가목사시지부 김린숙은 말하였다.

『조국에 여러번 다녀왔지만 정방산은 처음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재능이 깃들어 있는 성불사를 돌아보고 또 우아하고 기묘한 정방산을 등산하면서 이처럼 슬기로운 민족의 한 성원, 아름다운 조국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정말 조국에는 정방산과 같이 경치좋은 명산, 명승지들이 많습니다.』



낚시질에 여념이 없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식물채집



신비한 나라 조선

(진호에서 계속)

부패가 없는데서
마약을 찾지 말라

언젠가 한 출판물에서 조선을 마약과 련관시킨 자료를 보게 되었다. 유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면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모략이기 때문이였다. 다른 나라에는 타당할지 몰라도 조선에만은 어불성설이다.

나도 혹시나 하여 방문기간 마약관련문제를 놓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확인해볼지 고민하던 순간에 머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청년들이 많은 곳, 그곳이였다. 심중을 감추고 요청했더니 안내원이 어느 한 건설장으로 이끄는것이였다. 그때는 늦은 저녁이였다.

마치 영화촬영을 목적으로 한듯 사람들이 봄비였다. 방송차에서 울리는 담찬 목소리와 기중기의 동음, 건설자들의 노래소리, 각이한 음향들이 조화된 이런 현장을 나는 처음 경험하였다. 마술에 걸린듯 온몸이 거뜬해졌다. 가끔 베토벤의 교향곡인 《황희》로 번거로운 마음을 달래왔건만 이렇게 신선해 진적은 없었다. 저도 모르게 몰탈이기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건설장에 지원을 나온 대학생들, 근로청년들 등 각계층 젊은이들이였다. 약동하는 환경은 나를 취하게 했다. 잠간이라도 땀흘리고 집에 가야 밥맛이 난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다른 세계의 마약중독자들을 생각했다. 그들도

10, 20대 청년들이였다. 남조선은 10여년전까지만도 마약사용자가 100여만, 복용자는 2만여 명이였다. 희망이 좌절되고 대학진학의 길이 막힌 학생들, 경제생활의 빈궁화로 깊은이들이 부패해지는것을 어찌 막을수 있겠는가.

나는 이번 방문기간 평양 《교향곡》에 심취되었던 그때 그 자리인 오늘의 통라이민유원지에서 당파 국가가 인민에게 베푸지성에 취하였다. 건설장의 골재 한삽, 조국번영의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던 그 청년들의 소행이 응당한 일로 여겨졌다. 웃다. 그들은 나라의 젖줄기에서 자란 생명들이였다. 샘같은 보답의 마음은 마약으로도 저지시킬수 없는것이다.

세상에 마약을 이기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정신이다.

취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없다

지난 5월 8일부 《요미우리신봉》은 《취직에 실패하여 자살하는 청년들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하였다.

《취직에 실패하여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10, 20대의 청년들이 급증하고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작년에는 대학생 등 150명이 취직에 실패하여 고민하다가 자살하였는데 그 수는 2007년의 2. 5배로 늘어났다.》

남조선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도 실업자가 460여만명이며 교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가 된

청년들은 200만명이라고 지적되어있다. 하여 대학졸업증서는 《실업증서》로 통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다.

어느 나라나 실업자가 있는 것을 당연한것으로 여기던 나는 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에 새로운것을 알게 되었다. 공화국에 실업자가 없는것이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는 날에 그것을 알았다. 방문자들중에는 100여명의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졸업반이라는 말에 더 호기심이 커졌다. 파연 이들은 어떻게 취직 할가.

내 물음에 한 처녀대학생이 모두 농장에 진출한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것이였다. 강원도내 각 농장들이 자기들을 기다린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첫 직업은 농산기사였다. 으쌰댈만도 했다.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희망하면 곧 실현되는 사회라는것이 대변에 알렸다. 운이 좋게도 고민과 타락의 길이 이들에게는 주어져있지 않았다. 이런 것을 두고 진짜 자유가 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국가는 고급중학교와 대학졸업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주고 있고 또한 리기적선택이 아닌 도덕적선택이 사회풍조를 이루고 있으니 취직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다음호에 계속)

재미동포 리경실

—인·상·기—

겨레의 마음

나는 고국을 방문하는 기간 많은 곳을 돌아보았다. 그 가운데서 제일 인상적인 곳의 하나가 국가선물관이다.

이름부터가 나의 마음을 끈다. 나라마다 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각이한 박물관과 전람관이 있지만 고국에서처럼 인민들이 자기의領導자에게 올린 선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선물관에는 군인,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고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절세위인들께 올린 선물들이 수많이 진렬되어 있다. 그리고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 해외각지의 많은 동포 조직들과 동포들이 올린 선물들도 있다. 거

기에는 절세위인들의 영상과 존함을 모신 미술작품들과 각종 공예품들도 있고 그 분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만든 가구들도 있으며 대단히 큰 천연옥돌바위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보기드문것들도 있다.

그 선물들을 보느라면 하나하나가 다 지극한 지성을 바치지 않고서는 마련할수 없는 진귀하고 훌륭한것임을 알수 있다. 돌이켜보면 절세의 위인들께서 한평생 나라와 겨레를 위해 쌓으신 업적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기에 온 겨레가 그처럼 진심을 다해 그 분들을 높이 모시는 것이다.

나는 국가선물관은 우리 겨레의 마음이 합쳐진 고국의 재부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 따슈첸뜨주 신 쎄나

따뜻한 성, 최상의 영광

지난해 우리는 고국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하여 60년동안 꿈결에도 바라던 우리의 고국방문소망이 풀리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60년의 긴 세월이 지나 고국땅을 밟는 우리는 자기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고국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향기고윽한 꽃다발을 안겨주며 반갑게 맞아주는 고국인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였다.

행사기간에 우리 지원군로병들은 조선인민군로병들과 여러차례 상봉하였다.

60년전 당시 홍안의 피끓는 젊은이들이였던 우리가 로인이 되었지만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전장에서 어깨걸고 싸우면서 깊어진 전우의 우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서로 반가와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속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흘리며 생사를 같이한 전우들사이에 흐르는 뜨겁고 숭고한 우정과 의리의 뜻잊을 순간이였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우리는 고국인민이 지닌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충정심,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았고 일치하고도 위풍당당한 조선인민군의 기개에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가는 그들의 영웅적기상도 폐부로 절감하였다.

더우기 그 행사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실 때 우리는 그이께서 지원군로병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고국방문기간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국진한 관심과 은정에 의해 최고의 영접과 환대를 받으며 금수산태양궁전과 만경대고향집,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많은것을 배웠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

일제의 군사적 강점을 반대하여

판,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 등은 그 규모가 아주 웅장하고 설계가 정밀하며 아름답고 내용이 풍부하여 세계가 경탄할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였다.

행사기간에 진행된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어잡았다.

방대한 규모의 인원들이 금을 그은듯이 일치하게 하는 동작과 그들이 펼치는 생동하고 예술적인 화폭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고국에서만 창조할수 있는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대결작이다.

행사기간 우리들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해외동포대표단들, 우리 지원군로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던 것이다.

영광의 기념사진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영원히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가보라고 생각한다.

고국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성이 강한 인민이며 조직성과 규률성, 고상한 레의도덕을 지닌 영웅적인민이다.

이러한 고상한 품격들은 고국방문기간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피로써 맷어진 중조친선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쉬임없이 흐르는 압록강의 흐름처럼 영원할 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하는 고국인민의 앞길에는 행복과 영광 만이 있을것이다.

중국 료녕성 십양시 김태환

유모아

《제 아버지 병도

못 고치는데…》

아버지가 앓아서 의원에게 갔던 동생이 그냥 돌아왔다.

형: 《어째 의원을 모시지 않고 왔느냐?》

동생: 《그 의원은 지금 상제이오이다.》

형: 《상제는 약을 쓸줄 모르느냐?》

동생: 《그 의원이 남의 아버지 병을 고칠것 같으면 왜 제 아버지 병은 못 고쳐서 상제가 되었겠나요.》

19세기말 조선봉건왕조는 통치배들의 극심한 부패타락과 가혹한 봉건적수탈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으로 하여 쇠퇴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조선에 대한 유미자본주의열강들의 각축 전이 심해지는 가운데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었다.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군사적강점지로 만들기 위하여 악명높은 《정한론》을 대조선침략정책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었다.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조선인민은 1882년 임오군인폭동, 1894년 갑오농민전쟁, 19세기말~20세기초 반일의병들의 투쟁과 애국문화운동 등 수많은 투쟁을 벌리였다.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조선을 저들의 독점적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침략책동은 본격적으로 감행되었다. 1905년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또 다시 날조하여 나라의 국토를 비법적으로 병탄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 시기부터 각종 형태의 악법들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정치적자유와 권리의 폭압을 무참히 빼앗고 살벌한 폭압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는 나라의 곳곳에 현병, 경찰을 비롯한 침략무력을 배치하여놓고 우리 인민의 반일시위와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것은 물론 두명이상이 마주 서서 말을 하여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인민들은 일제의 군사적 강점을 반대하여 거족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특히 1919년 전국적범위에서 반일항쟁으로 타올랐던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밑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다.

근대시기 일제의 조선침략과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벌어진 조선인민의 모든 투쟁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 혁명적당의 지도를 받지 못하였고 일제의 군사적위협과 공갈에 겁을 먹은 봉

전통치배들의 사태투항주의적행위와 당시 인민들의 정치적 및 계급적각성의 미숙성으로 하여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제의 군사적 강점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십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였으며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혁명유산으로 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주체21(1932)년 4월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였으며 항일대전의 전기간 주체학립을 일관하게 견지하시면서 전체 조선민족을 일제와의 싸움에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을 거족적인 반일항전에 조직동원하시기 위하여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여기에 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자본가, 종교인 지어 적기판에 복무하더라도 민족적량심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퉁튼히 뮤어세우시였다.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193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를 포함하여 1930년대 전반기, 1930년대 후반기, 1940년대 전반기로 3단계의 전략적발전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명월구회의와 남파자회의 등 수많은 회의들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에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혀주시고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 라자구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전투에서 조직지휘하시며 조선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특히 주체26(1937)년 6월 보천보전투를 몸소 조직지휘하신 그이께서는 보천보의 밤하늘에 타오르는 불길을 가리키시며 저 불길은 우리 민족

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쳐 침략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보천보전투가 있은후 인민들속에서는 보천보에서 왜놈들이 몰살당했다,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의 통마를 타시고 백두산에서 왜놈군대를 죽치시는 명장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민족의 가슴속에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한 보천보전투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은 그간고성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항일대전의 나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백두의 설한풍과 평하 40℃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이겨내야 하였으며 매일같이 앞뒤에서 달려드는 수천수만의 적들과 피어린 전투를 벌려야 하였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장냉이 몇알파 풀뿌리, 맹물과 생눈으로 끼니를 에워야 하였고 소금마저 떨어져 온몸이 븏기도 하였다.

이 간고한 싸움의 나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생눈길을 헤쳐가시였으며 대원들에게 온갖 육친적사랑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 모든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이를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밟들고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무적》을 자랑하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으며 적들을 혼란에 몰아넣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치체계를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용감하고 대중적인 반일투쟁에 의해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군사적통치는 종말을 고하였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혁명적위업이 이룩되게 되였다.

력사연구소 연구사 권기천

유구한 승마의 력사를 거슬러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말을 타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해외동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TV와 인터넷,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국의 눈부신 소식들에 대해 들을 때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오늘을 그려본 분들이 아니였습니까.

승마운동은 오늘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고 민족적공지에 넘치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일류급의 문화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승마운동의 력사를 거슬러올라가보느라면 예로부터 말타기를 즐겨한 우리 민족의 승마풍습에 대하여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말타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활쏘기와 함께 말타기는 오

래동안 조선의 《국기》로 인정되어왔다고 합니다. 세종을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의 여러 왕들이 자주 《우리 장끼는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것이다.》라고 한 말이 력사에 남아 후대들에게 민족의 우수한 승마풍습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말은 자기가 가지고있는 성질로부터 사람들과 친숙하기 쉬우며 사람에게 복무한 력사도 짧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집짐승으로 부리기 시작한것은 대체로 B. C. 4 000년경으로, 승마풍습이 시작된것은 B. C. 2 000년경으로 보고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잘 탔다고 합니다. 나라가 제일 강했던 고구려때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말을 탈줄 알았고 활을 쏠줄 알았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말타고 사냥하는 모습은 고구려벽화무덤들인 춤무덤, 약수리무덤, 덕흥리무덤 등

에 잘 반영되어있습니다. 사냥과정을 통하여 고구려사람들은 그 어떤 침략자도 두려움모르고 단대에 처부실수 있는 무비의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의 밑바탕에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즐겨한 말타기와 말타고 활쏘기, 창쓰기, 칼쓰기의 오랜 전통이 깔려있습니다.

고구려의 승마풍습과 승마에 필요한 말을 부리는 기구들, 말치레거리들은 동족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 가야는 물론이고 이웃나라인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승마풍습은 그후 발해와 고려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런면히 이어졌습니다.

마상재는 말그대로 말우에서 재주를 부리는것인데 여기에는 달리는 말우에 바로 서거나 거꾸로서있는 동작, 말안장을 잡고 좌우로 몸을 뒤채기도 하고 말에 매달려 발을 땅에 끄는 동작 등 다양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전통적인 승마

풍습을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강토를 지켜냈으며 그 우수한 문화를 널리 전파시켰습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하게 크고 멋있게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전통적인 승마풍습을 홀륭히 이어나가고있습니다.

기름지고 건강한 말들에 올라 멋진 토사주로며 잔디주로를 마음껏 달리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크나큰 공지를 가슴속에 더욱 새겨안는 우리들입니다.

평범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대중승마기지를 일떠세워준 나라는 아마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없을것입니다.

조국인민들속에 차넘치는 승마열풍,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우수한 민족전통을 세세년년 이어갈 인민들의 그 열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습니다.

윤홍기



승마풍습을 보여주는 약수리벽화무덤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기마모형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강들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강들로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 시원을 둔 압록강, 두만강을 비롯하여 대동강, 락동강, 한강을 꼽는다.

압록강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서 그 길이는 803km에 달한다. 압록강은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의 18개 시, 군을 지나 조선서해로 흘러든다.

압록강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의 혁명활동사적이 어려있는 뜻깊은 강이다. 오랜 옛날부터 민족의

력사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흘러온 압록강에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논 수많은 이야기도깃들어있다.

압록강은 자연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연안에는 금, 니켈, 동, 석탄, 류화철, 고령토를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들이 풍부하게 묻혀있으며 압록강과 그 지역에는 잉어, 붕어, 누치, 빙어, 열목어, 뱃장어 등 80여종의 물고기들이 있다.

압록강과 같이 백두산에 시원을 둔 두만강은 중국, 로씨야와

경계를 이루며 굽이치다가 라선시 우암리에서 조선동해로 흘러든다. 두만강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사선을 헤치시며 국내에로 넘나드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스며있다. 두만강류역일대에는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회령혁명사적지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군사정치활동을 벌린 수많은 혁명전적지들이 있다.

두만강의 길이는 547. 8km이다. 두만강에는 이 강에만 고유

하게 사는 두만강야례를 비롯하여 산천어, 연어, 송어, 황어 그리고 잉어, 붕어 등 수십종의 물고기들이 있다. 연안에는 대규모의 철광석매장지 등이 있다.

대동강은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시의 중심부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수령님과 혁명일가분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많은 혁명사적지들을 지나 흐른다. 대동강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 신김응우선생님께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여 1866년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침략선 『서먼』호를 격침시켰으며 2년후인 1868년 대동강어구에 침입한 미제침략선 『쉐난도아』호를 격

퇴하는 싸움에 크게 이바지하신 불멸의 투쟁자취가 스며있다.

대동강의 길이는 450. 3km이다. 랑림산줄기의 한태령(1356m)에서 시작되어 620개의 크고작은 지류들을 모아가지고 복잡한 나무가지모양의 하계를 이루며 흐른다. 대동강에는 송어, 잉어, 붕어, 쏘가리, 누치 등 60종이상의 물고기가 있으며 강류역에 서해갑문을 비롯하여 미림갑문, 봉화갑문, 성천갑문, 순천갑문 등이 건설됨으로써 연안에서 큰물피해가 영원히 없어졌다.

락동강은 길이가 523. 2km이다. 류역에는 중석, 망간, 연, 아연, 코발트, 철, 고령토, 석탄 등이 묻혀있다.

락동강과 그 류역일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 마지막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이 락동강계선에서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파뢰군에게 섬멸적타격을 준 투쟁위훈이 깃들어있다.

한강은 남강원도 태백시 대덕산에서 시작하여 개성시 판문군과 경기도 김포시사이에서 조선서해 강화만에 흘러드는 강이다. 길이는 502. 8km이다. 강이 크므로 예로부터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한강류역에는 길이 5km이상의 지류가 1 033개나 있다. 한강에는 잉어, 뱡어, 송어, 뱃장어 등의 물고기가 있다.

본사기자 유선희



조국통일의 주체

오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갈라져있는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는것보다 더 큰 민족적과업은 없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설사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민족의 피와 냄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뗄수 없이 연결되어있다.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장된 민족의 분렬로 조선민족은 근 70년간이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고있다. 이러한 민족의 분렬은 오늘 날에 와서 단일민족의 공통성마저 사라지게 하고 민족의 운명자체를 염중히 위협하고있다.

조성된 현실은 북에 살진 남에 살진 해외에 살진 그가 조선민족의 피와 냄을 지닌 사람이라면 거래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민족의 분렬을 끌끌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것만큼 통일문제는 응당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그 누구도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대신해 줄수 없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것도, 그 담당자도, 그 덕

을 볼 사람도 다름아닌 조선민족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응당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다.

자주적지향을 안고 하나의 목적과 리상으로 굳게 단결된 민족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자기 민족이 제일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립장을 견지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외세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

북과 남은 이미 역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을 통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 할것을 확약하였다. 6. 15통일시대에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자

주적으로 이루할 확고한 의지밑에 굳게 단합하여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며 민족분렬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사변적성파들을 이루어하였다. 6. 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정신으로 굳게 단결할 때만이 조국통일의 주체가 강화되고 그 위력도 비상히 높아진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 올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갈 때 조국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화발전에 이바지한 강희안

강희안(1417—1464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학자이며 화가이다.

이름난 농학자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글씨와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시, 글씨, 그림에 모두 뛰여나 《3절》이라고 불리웠다.

1441년에 문파에 급제하여 집현전직제학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어학자로서 정린지, 신숙주 등과 함께 훈민정음해석편찬에 참가하였으며 1455년에 주조한 활자인 《을해자》의 원본을 써서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였다.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의 학풍을 이어 관상용화초와 나무들을 재배하는 기술과 취미에 대하여 쓴 글 《양화소록》(1권 1책)을 저술하여 원예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의 활동가운데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화가로서의 창작활동이다. 그는 먹으로 작은 경치그림을 그리기 좋아하였으며 별례, 새, 꽃과 나무, 인물을 잘 그렸다고 한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미인도》, 《매미》, 《대나무》, 《발갈이》(경운도) 등이나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 지금 남아있는 그의 작품가운데서 대표적인것으로는 선비들의 한가한 생활을 그린 《산수인물도》(생각에 잠겨)

와 《고사도교도》(다리를 건느다) 등이 있다.

이 그림들에는 복잡하지 않은 화면구성과 힘있고 간략한 필치로 인물들의 성격과 심리적 움직임 그리고 물체들의 특징이 잘 그려져 있다.

《용재총화》를 비롯한 기타 기록들에서는 그가 그린 《려인도》, 《청학동도》, 《청천강도》와 열두폭의 경치그림들을 다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전해지는 것은 없다.

그는 그림을 직업적으로 그리지 않은 대표적인 문인화가로서 당시 전문화가들을 멸시하는 양반사대부들의 사상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그림의 주제선택에서도 선비들의 안일한 생활과 그들의 목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머물렀으며 일부 묘사에서는 필력과 뜻만을 추구하고 형태를 무시하는 요소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는 묘사대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세련된 소묘력, 풍부한 표현력 등 높은 예술적 기량을 가지고 조선화의 표현수법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안전, 리상화 등과 더불어 15~16세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 * *

글 모르는것이 서려워서 ...

18세기 명창으로 소문난 인물인 박남이 점심을 먹고 집안에 드려누워 한가히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웃의 너인이 황급히 그를 찾아왔다.

『아주머니, 집에 불이라도 나시었소? 왜 이리 경황없이 그러시우?』

박남은 얼굴에 난 땀을 씻으며 가쁜숨을 토했고 서있는 이웃집녀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저, 사실은 ...』

이웃집녀인은 박남의 집으로 달려오던 기세와는 전혀 다르게 주저주저하며 오물거리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박남은 군침을 꿀꺽 삼키였다.

『아,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시우. 이거 오금이 다 저리웨다.』

박남이 이렇게 다우쳐 재촉해서야 너인은 손에 쥔 봉투를 가까스로 앞으로 내놓았다.

『저, 이것을 좀 ...』

『그게 웬거요?』

『우리 집주인이 보낸 편지인데 ...』

『편지? 아하, 그 데 주인이 서울에 상번서리 올라갔다더니 이제야 소식이 왔나보군. 그 좋은 소식을 받고 왜 이리 우물쭈물하시오?』

박남이 제일인듯 기뻐하자 이웃집녀인은 얼굴을 붉히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 적혔나 좀 자세히 보아주세요.』

* * *

『아참, 그렇겠군.』

박남은 그제야 이웃집녀인이 편지를 들고 달려온 사연을 알았다는듯 자리에서 일어나 너인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펼쳤다.

너인은 편지를 주고나서 박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가 하고 마음을 옥죄이며 기다리였다.

그러나 편지를 열번나마 읽어보교도 남을 시간이 지났지만 박남의 입은 좀처럼 열려질 줄 몰랐다.

박남의 얼굴이 점차 까맣다못해 새하얗게 변하더니 이어 크고 서글서글한 두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였다.

이웃집녀인은 남의 편지를 보고 저렇게 슬퍼우니 틀림없이 편지속에 기막힌 사연이 적혀 있는 줄로 알고 사뭇 마음이 야속해져서 그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다.

『저, 이보세요.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절 속이지 말고 다 말해줘요.』

그리자 박남은 흐르는 눈물을 한팔로 쑥 문지르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내가 슬퍼하는것은 편지때문이 아니라오. 나이 예순이 다된 놈이 글자도 못 읽어서 편지의 사연을 말해줄수 없으니 ... 그게 가슴이 아파 나도모르게 눈물을 흘린거라우.』

* * *

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발명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11세기 말에 금속주물 및 가공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 데 있었다.

고려에서 12세기 전반기에 금속활자를 발명,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개성의 고려왕릉에서 발견된 동활자인 《복》자이다. 크기가 1. 1cm×1. 0cm인 이 글자는 뒤면에 구슬모양으로 찍힌 자리가 남아있다. 이것을 통하여 글자의 뒤면이 구슬모양으로 된 나무 또는 흙으로 만든 활자를 리용하여 주형을 만들고 그것으로 동활자를 부어 만들

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방법은 바다가의 보드라운 모래(찰흙)로 만든 주형으로 《해동통보》를 주조한 방법과 같은 것이다.

지금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청동활자는 당시 발전된 활자주조기술과 인쇄기술을 잘 보여준다. 이 금속활자의 높이는 8mm이고 글자를 새긴 면의 크기는 가로 12mm, 세로 10mm이며 뒤면은 평면이다. 그리고 활자의 주성분은 동파석, 연이고 부성분으로는 규소, 철, 알루미니움 등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도금속활자로 인쇄출판된 책으로서는 1297—1298년에 찍은 《청량답순

종심요법문》, 1317—1324년의 《공자기어》, 1377년에 충청도 청주의 흥덕사에서 찍어낸 불교책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 등이 있다.

이와 같이 12세기 전반기부터 시작된 고려에서의 금속활자에 의한 서적출판사업은 14세기 말까지 국가적 규모에서 크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되고 사용되어온 우리 나라의 금속활자인쇄기술은 중국을 거쳐 유럽에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 * *

상식

민족의 자랑 금속활자

금속활자는 동, 놋쇠, 연, 아연 등 금속을 녹여서 활자겁에 부어 만든 활자이다. 처음에는 동이나 놋쇠 등으로 만들었으며 그후 주물기술과 합금기술이 발전되면서 연활자가 나왔다. 현재는 쉽게 녹으면서도 주조가 잘되며 활자의 세기를 높여주는 연합금(연, 안티몬, 석 등)이나 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아연합금 등으로 만든다.

금속활자의 출현은 인류문화발전

력사상 획기적사변의 하나로 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 사용하여 인쇄출판업을 크게 발전시킨것은 우리 나라이다.

색과 문양, 모양이 특출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고려자리를 만들어내여 나라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친 고려사람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고려에서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

명한 시기는 12세기 전반기로 보고 있다.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발명될 수 있었던 것은 10~11세기에 서적에 대한 늘어나는 사회적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인쇄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으로 목판 및 목활자인쇄기술을 발전시켜온 오랜 경험과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는 이미 11세기에 목판 및 목활자를 새기고 서적을 출판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성균관느티나무

성균관느티나무는 개성에 있는 고려성균관마당안에서 자라고 있다. 우리나라 느티나무들 가운데서 오래 자란 큰 나무이고 성균관과 함께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오는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나무는 6. 5m 높이까지 끈고 미끈하게 자라다가 두갈래로 좁은 각을 이루고 뻗었으며 그우로 9개의 굵은 가지들이 돌려붙어 닭알모양을 이루었다.

높이는 25m, 밑둘레는 7. 1m, 나무갓직경은 17m이다.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38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조선의 느티나무들 가운데서 오래 자란 나무들 중의 하나로서 학술연구에서 의의가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수원



외교의례꼴에 있는 일

명나라에서 동월이라는 학자 문인이 외교사절로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있은 일이다.

그를 영접한 우리 관원들 속에는 서거정(1420—1488년)도 있었다. 동월은 의례행사가 끝나자 좌중을 살펴보았다. 그는 풍채가 품위 있고 보기에도 호방하며 영민한 선비형인 관원을 보고 초면에 마음이 펼쳐 다른 한 관원에게 저분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서거정이라는 분이시오.》

그리자 동월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웃나라의 외교사절이라고 취하던 공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치 오래간만에 친한 친지를 만난 것처럼 서거정에게로 달려가다시피 하였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의아한 낯빛으로 지켜보았다. 서거정 자신도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거정은 어정쩡했던 한순간의 자세를 제꺽 버리고 자기에게로 접근하는 동월을 반가운 벗처럼 웃으며 맞이하였다.

《서공!》

《동시강!》

《이렇게 만나니 감개무량합니다.》

《나역시 여기서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의아해졌다.

(서거정이 언제부터 동월과 사귀였단 말인가. 그럴 기회가 없었겠는데 …)

그들의 의문은 응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월의 말을 듣고는 그 의문이 대번에 풀렸다.

『내가 서공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공의 고명한 시문을 대한지는 오래전 일이 올시다.』

『나역시 동시강의 글명성은 들은지 오릅니다.』

서거정은 상대가 감탄해 마지 않는 심정에 맞게 상대의 체면을 돋구어주면서 이야기 실꾸리를 립기웅변으로 슬슬 풀어나갔다.

『나는 일찌기 연경(베이징)에 있으면서 예학사가 쓴 <료해론>을 보았고 또 기호부의 <황화집>도 보았습니다. 그 책들에 있는 서공의 시문들을 읽어보면서 만리해변의 모래무지에서 금싸래기를 얻은 심정이였습니다.』

『파분한 말씀입니다.』

서거정은 서글서글하고 해학적인 성미그대로 호방하게 웃으며 겸손을 표시했다.

그는 자세를 높이지 않았지만 동월이 한 말은 진실이였다.

동월이 오기 전에 한림학자 예겸과 호부관원 기순이 명나라 사절로 우리나라에 온 일이 있었다. 그때 서거정을 만나본 그들은 대번에 그 인품에 반해버렸고 그의 시에 매혹되었다. 예겸이나 기순은 당시의 한사람이었다.

비굴하지도 않지만 공연히 거만도 퍼우지 않는 소탈한 서거정과 사귀면 사귈수록 그들은 밀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끌리는 심정이였다.

그들은 서거정과 주고받은 시문을 정히 전사해 가지고 귀국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

주었을뿐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들의 저서에까지 올리였다. 동월도 그들이 쓴 책들에서 조선의 서거정이 쓴 주옥같은 시문을 읽고 감탄하였던 것이다. 동월은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난듯 약간 상기된 얼굴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예학사나 기호부는 서공과 사귀던 때를 회억하면서 <진실로 신기한 재주로다. 우리는 온 밤을 자지 않고 구상해도 겨우 시 한두편을 얻을뿐인데 서공은 잠시 담화하는 동안에도 붓을 들면 모두 주옥같은 시가 이루어지니 실로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재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누구인들 서공을 흡모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러지 마시오. 나야 동학사나 예학사, 기호부에 비하면 이제 겨우 초학도에 지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나보다 비할바없이 월등한 문인재사가 많답니다.』

『글은 곧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의 글을 대하고 흄모한지 오랜으니 공을 사귀고 존경한지 오랜거나 같지 않습니다. 오래동안 만나려던 간절한 소원이 풀렸으니 이번에 마음껏 시문을 지어봅시다.』

『예, 나도 이번 기회에 많이 수련하겠습니다.』

이렇듯 문장가로서의 서거정의 재능은 국내에서는 물론 나라의 지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 * *

애국과 매국

오늘 온 겨레는 누구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시대와 역사의 부름앞에 어떤 립장과 자세로 나서는가에 따라 애국과 매국이 갈라지게 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롭고 존엄높은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분렬의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통일만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다.

통일은 애국이고 민족의 번영이며 분렬은 매국이고 민족의 불행이다.

조국통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빛내이는 길이다.

애국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다. 민족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결합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참다운 애국의 삶이다.

조선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용감하게 싸워온 대바르고 강의한 민족이다. 지난날 일제의 군사적 강점시기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할 때 온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오늘날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외세에 의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은 민족의 자주권실현에서 엄중한 장애로 되고 있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이 확립되지 못한탓에 북파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입고있는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자 곧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분렬은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지속시키고 외

세의 지배와 예속, 동족대결상태에서 벗어날수 없게 한다. 민족의 분렬을 추구하는것은 나라의 절반땅을 외세의 지배와 예속밑에 떠맡김으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외세에게 팔아넘기고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된다. 민족분렬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들자신이며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뿐이다.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지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심히 유린, 통락당하게 하는것보다 더 큰 매국은 없다.

조국통일은 조선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단결위업이며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무궁번영의 근본전제를 마련하는 애국사업이다.

조국통일운동의 거족적성격으로부터 민족의 단합은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며 민족대단결이자 겨레가 바라는 통일이다.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것은 민족적단합을 파괴하고 분렬을 추구하는것이다. 결국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것은 단합과 불신,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조국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6. 15 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 할 때에만이 실현될수 있다.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면서 《평화》를 운운하는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분렬은 평화번영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다.

오늘날 민족성원 그 누구도 통일애국을 떠나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리익인것만큼 북파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앞당겨 오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대철

력사의 교훈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들고 일어났던것이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봉기는 서울과 원산, 의주를 비롯한 나라의 전역을 지나 중국과 로씨야, 일본 등 해외의

3. 1인민봉기자들



일제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봉기참가자들



조선동포들이 살고있는 곳곳으로 퍼져갔다.

시위군중은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웨치면서 거리를 누비며 행진하였다.

일제는 맨주먹밖에 없는 평화적시위자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죽이며 거리와 마을들을 삽시간에 퍼바다로 만들었지만 시위자들은 앞대렬이 쓰러지면 그 뒤대렬이, 뒤대렬이 쓰러지면 또 그 다음대렬이 앞장에 나서면서 전진하였다.

언론, 집회, 시위는 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며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에는 『매 개인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야수들은 『일본사람의 집 한채가 불타면 조선사람의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며 일본인 한명이 죽으면 될수록 많은 조선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떠벌이며 평화적시위군중 탄압에 조선주둔 라남 19사단과 통산 20사단, 현병, 경찰 등을 총동원하였다. 그리고 본토에서 6개 대대의 병력과 많은 현병을 끌어들였으며 조선에서 살고있던 일본인들에게도 각종 흥기를 쥐여주면서 조선인학살에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잘리우고 생매장당하였으며 피비린내가 온 나라 강산에 차고 넘쳐 일제의 살인만행에 대한 원한은 구천에 사무쳤다.

여기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자기 상급에게 제출한 자료 『소요사건에 관한 민정첩보 제9호(3월 1일—3월 10일)』가 있다.

『체포 남자 5만명이상, 여자 1 000명

사망자 남자 1만명이상, 여자 300명

부상자 남자 5만명이상, 여자 1 000명, 소아 300명이상』

기어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려는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도 불구하고 봉기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3. 1인민봉기가 가져다준 교훈은 참으로 컸다.

3. 1인민봉기당시까지만 하여도 조선에는 이 거족적인 반일항쟁을 이끌만 한 지도력량이 없었다. 수백만군중이 나라를 찾을 공통된 지향을 안고 항쟁의 거리로 달려나왔지만 혁명적인 당의 령도가

백두대산줄기

우리 나라의 산줄기들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지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부터 지리산줄기 구재봉까지의 산줄기들은 하나의 산줄기 백두대산줄기를 이룬다.

백두대산줄기의 총길이는 1 470km(3 670여리)이며 평균 해발높이는 1 170m이다.

나라의 강토를 하나로 이어 놓고 있는 백두대산줄기는 각 이한 형태학적 특징을 가지는 여러개의 산줄기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산줄기이다.

백두대산줄기는 북서—남동 방향이거나 또는 북동—남서방향의 백두산줄기, 부전령산줄기, 북대봉산줄기, 마식령산줄기, 철령산줄기, 태백산줄기, 소백산줄기, 지리산줄기들의 연쇄로 이루어졌다.

백두대산줄기에는 백두산(장군봉 2 750m), 남포태산(2 433m), 두류산(2 309m), 동점령산(2 113m), 희사봉(2 117m), 북산(2 069m), 소마대산(1 934m), 사수산(1 746m), 백산(1 449m), 북대봉(1 326m), 금강산(1 639m),

국사봉(1 383m), 태백산(1 561m), 소백산(1 439m), 지리산(1 915m) 등 해발높이가 1 000m이상인 산들이 있다.

백두대산줄기의 주봉들의 높이를 보면 산줄기의 최고봉인 백두산(장군봉 2 750m)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다가 남쪽말단가까이의 지리산(1 915m)에 이르러서는 좀 높아진다.

백두대산줄기의 안부들의 높이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데 허항령—황초령구간에서 해발 1 000m이상, 금강산—태백산구간에서는 해발 650

~900m, 태백산—지리산구간에서는 더 낮아져 문경고개에서는 해발 548m, 추풍령에서는 해발 200m이다. 이와 같은 해발높이는 백두대산줄기가 북쪽에 위치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뻗어내렸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동시에 이것은 백두대산줄기가 조선반도의 지반기 풍기축이라는것과 풍기축에서 백두산일대가 풍기의 중심부라는것을 보여준다.

백두대산줄기는 기본적으로 선형구조를 가지는데 선형구조는 우리 나라의 지체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를 하나의 산줄기로 정하고 그것을 백두대간이라고 불렀으며 조선의 모든 산들이 다 백두대간에서 빼어내렸다는로부터 백두산을 우리 나라 산악의 조종이라고 불렀다.

백두대산줄기는 조선반도의 척량산줄기를 이루면서 조선서해, 조선동해와 조선남해로 흐르는 하천수역들사이의 분수령을 이룬다.

우리 나라의 지형은 백두대산줄기를 축으로 하여 북부는 높고 남부와 남서부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그리하여 백두대산줄기의 북부에는 고산성산지가 놓이고 남부와 남서부, 북동부로 가면서 중산성, 저산성산지들이 놓여있다.

이처럼 백두대산줄기는 나라의 지형발달에 큰 영향을 주며 조선은 백두대산줄기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 * *

없었던 탓으로 하여 봉기는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 수 없었으며 통일적인 강령과 투쟁계획에 따라 전개되지 못하였다.

거기에다 사대주의가 농후하고 자체의 혁명력량도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3. 1인민봉기를 《지도》하겠다고 나선 33명의 《민족대표》들이 대중파 한 《약속》을 쥐버리고 료리점에서 먹자판을 벌리며 일제에게 투항변절하는 비극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3. 1인민봉기로 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그후 형식상으로나마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운동에서 수령은 결정적지위와 역할을 하며 무장한 적들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한다는 3. 1인민봉기의 교훈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커다란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윤영일

유적

현무문

현무문이란 이름은 사신가운데서 북방방위신으로 되여있는 현무에서 딴 것이다.

현무문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 그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주체35(1946)년 3월 2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다녀가신 사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현무문은 모란봉에 자리잡고 있다.

현무문은 6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처음 세우고 고려시기 보수와 재건을 거듭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의 성문은 1714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1855년과 주체43(1954)년에 크게 보수한 일이 있다.

현무문은 성벽의 연장으로 되는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축대는 성벽과 같이

4각추형으로 다듬은 성돌로 세로 통이음줄이 나지 않게 차곡차곡 포개여 쌓았으며 그 복판에 무지개문을 냈다. 축대우에는 성가퀴를 돌렸다. 축대의 높이는 약 2. 5m이다. 문루는 정면 3간(7. 05m), 측면 1간(3. 1m)의 홀처마합각집이며 홀림기둥에 두공을 쓰지 않고 모루단청을 입혀 주위의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게 하였다.

성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심히 파괴되었던것인데 공화국의 옳바른 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보수되어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무문은 선조들의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높은 성문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보통강반에 노을이 불탄다. 본사기자 최원철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피여오르는 노을은 보통강반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유유히 흐르는 보통강을 옆에 끼고 우뚝 솟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며 《승리》상 그리고 보통강에 박혀있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

이 모든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침략자들의 패망상이 어떤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7-382154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